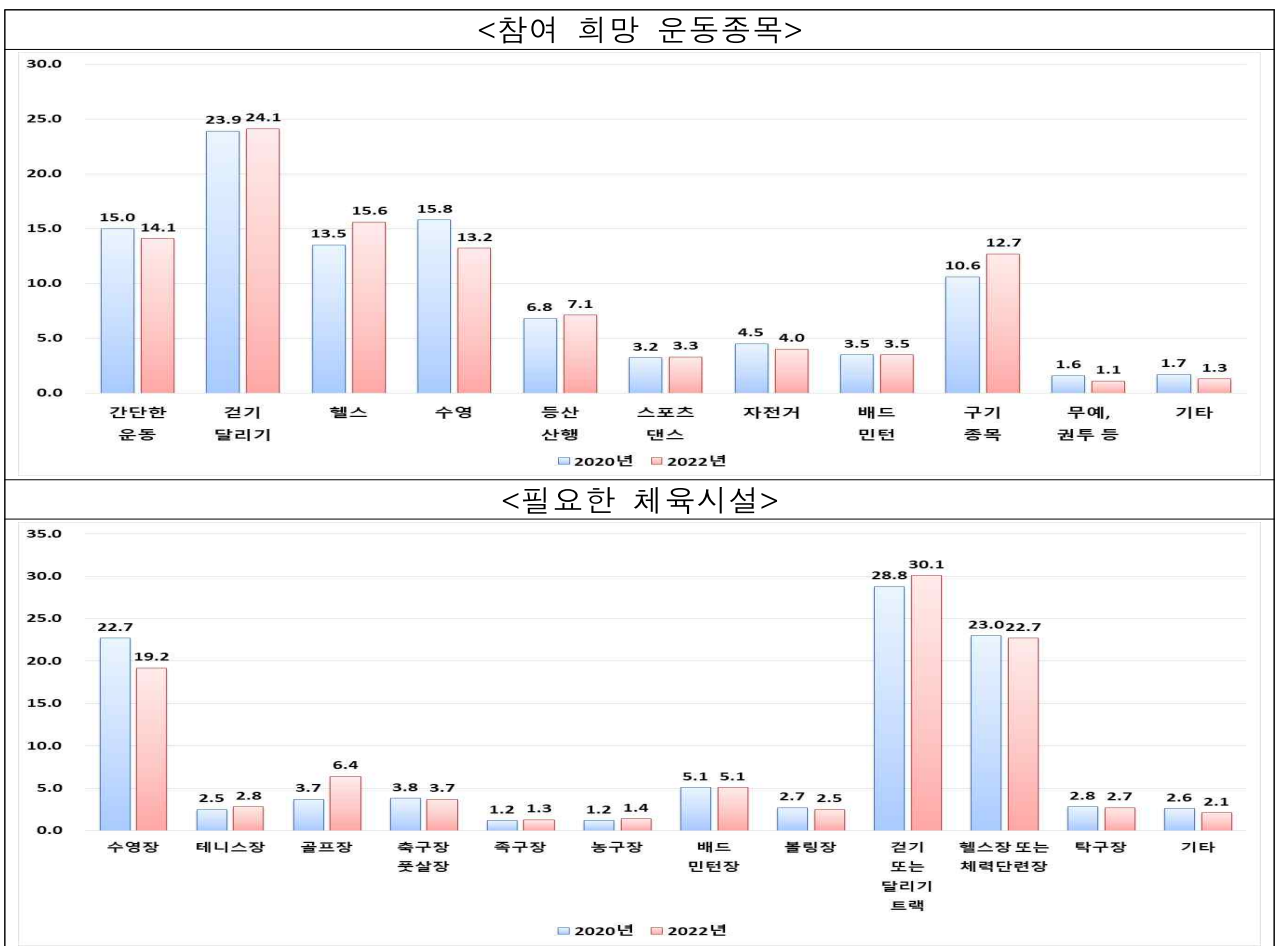


2022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결과(요약)

I. 보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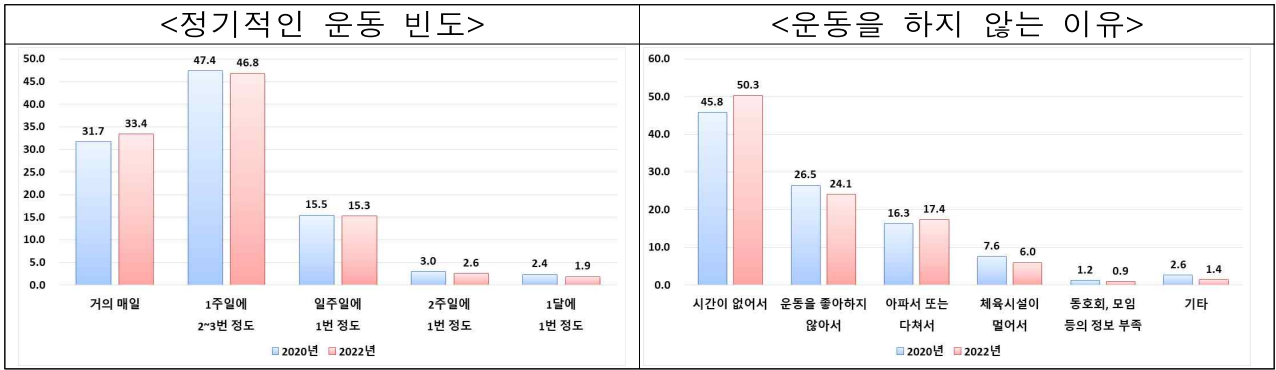
□ 참여 희망 운동종목 및 필요한 체육시설

- 경남도민이 가장 참여하고 싶은 운동종목은 「걷기, 달리기」 24.1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「헬스」 15.6%, 「간단한 운동」 14.1% 등 순으로 나타남
- 경남도민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체육시설은 「걷기 또는 달리기 트랙」 30.1%로 나타났으며, 그다음으로 「헬스장 또는 체력단련장」 22.7%, 「수영장」 19.2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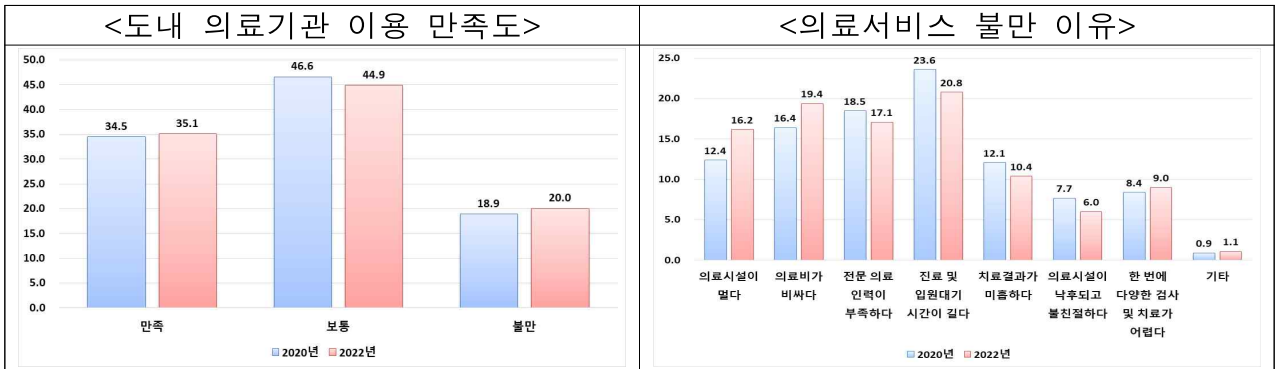
□ 정기적인 운동 빈도 및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

- 경남도민의 정기적인 운동 빈도는 「1주일에 2~3번 정도」가 46.8%, 다음으로 「거의 매일」이 33.4%로 나타남
- 경남도민의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「시간이 없어서」가 50.3%로 나타났으며, 「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서」 24.1%, 「아파서 또는 다쳐서」 17.4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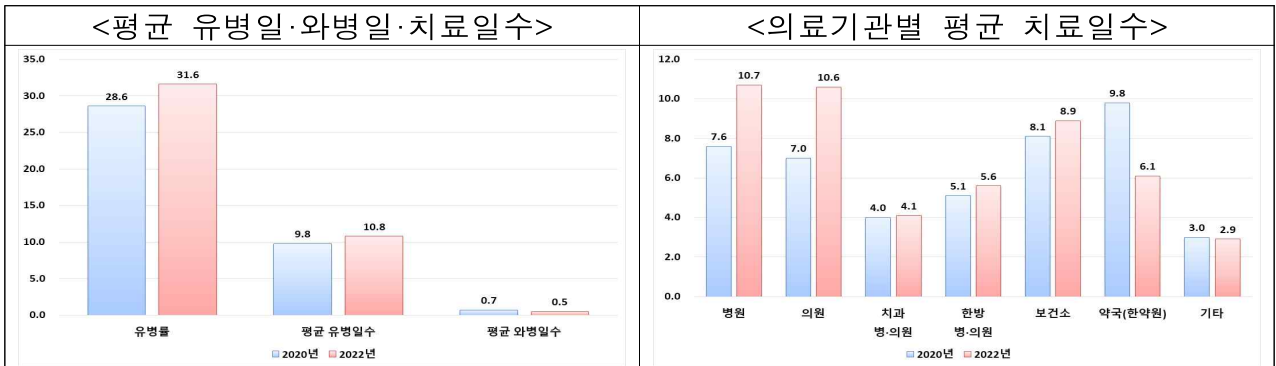
□ 의료시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이유

- 경남도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내 의료기관은 「의원」 56.3%, 「병원」 28.9%로 나타났고, 의료기관 이용만족도는 「만족」 35.1%, 「불만」 20.0%로 나타남
- 경남도민의 의료서비스 불만 이유 중 「진료 및 입원대기 시간이 길다」가 20.8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그다음으로 「의료비가 비싸다」 19.4%, 「전문 의료인력이 부족하다」 17.1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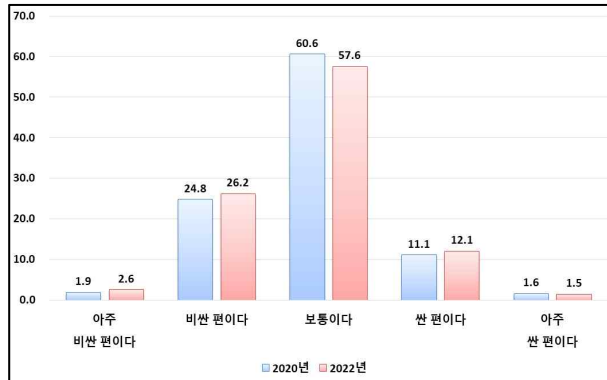
□ 유병, 와병기간 및 치료방법

- 도내 가구의 유병기간 및 와병기간에 대하여 「유병률」은 31.7%로 나타났으며, 「평균 유병일수」 10.8일, 「평균 와병일수」 0.5일로 나타남
- 진료자가 있는 가구의 「평균 치료일수」는 11.1일이며, 「병원 평균 치료일수」 10.7일, 「의원 평균 치료일수」 10.6일, 「보건소 평균 치료일수」 8.9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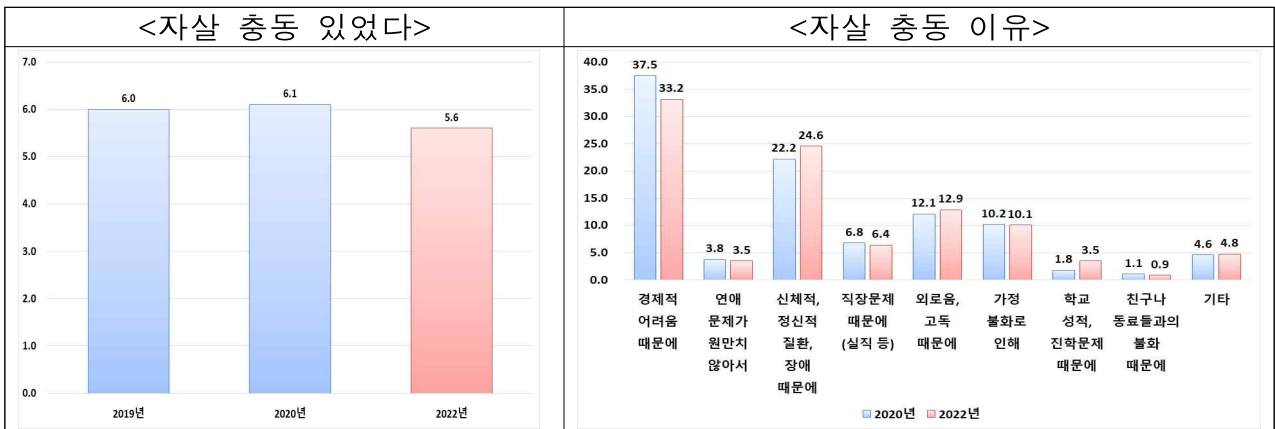
□ 의료비 부담정도

- 경남도민 의료비 부담정도에 대하여 살펴보면, 「보통이다」이 57.6%, 「(아주) 비싼 편이다」 28.8%, 「(아주) 싼 편이다」 13.6%로 나타남



□ 자살에 대한 충동 여부 및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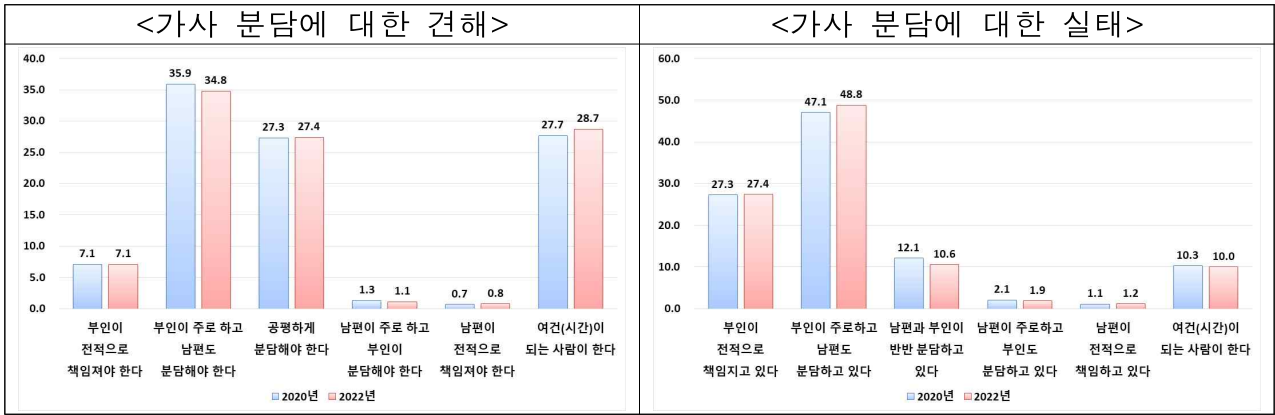
- 경남도민의 자살에 대한 충동 여부는 「없었다」가 94.4%, 「있었다」가 5.6%로 나타났으며, 자살 충동에 대한 이유는 「경제적 어려움」 33.2%, 「신체적, 정신적 질환, 장애 때문에」 24.6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II. 가족과 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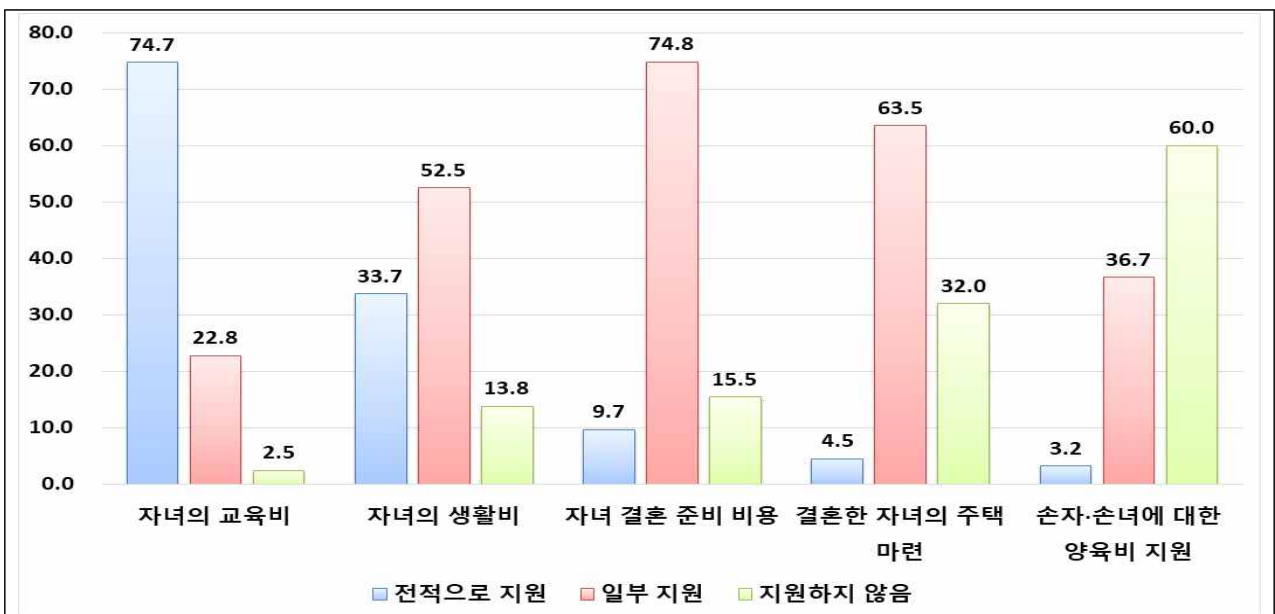
□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태

- 경남도민은 가사 분담에 대하여 「부인이 주로」가 34.8%, 「여건이 되는 사람」이 28.7%, 「공평하게 분담」이 27.4%임
- 경남도민의 가사 분담 실태에 대하여 「부인이 주로」가 48.8%, 「부인이 전적으로 책임」이 27.4%이며, 「공평하게 분담」이 10.6%, 「여건이 되는 사람」이 10.0%로 나타남



□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

- 경남도민은 자녀의 교육비에 대하여 「전적으로 지원」이 74.7%로 나타났고, 「일부 지원」 22.8%, 「지원하지 않음」 2.5%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경남도민은 자녀의 생활비에 대하여 「일부 지원」이 52.5%로 나타났으며, 「전적으로 지원」 33.7%, 「지원하지 않음」 13.8%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경남도민 중 자녀 결혼 준비(혼수 및 신혼집 마련) 비용에 대하여 「일부 지원」이 74.8%로 나타났으며, 「지원하지 않음」 15.5%, 「전적으로 지원」 9.7%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경남도민 중 결혼한 자녀의 주택 마련 비용에 대하여 「일부 지원」이 63.5%로 나타났으며, 「지원하지 않음」 32.0%, 「전적으로 지원」 4.5%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경남도민 중 손자·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에 대하여 「지원하지 않음」이 60.0%로 나타났으며, 「일부 지원」 36.7%, 「전적으로 지원」 3.2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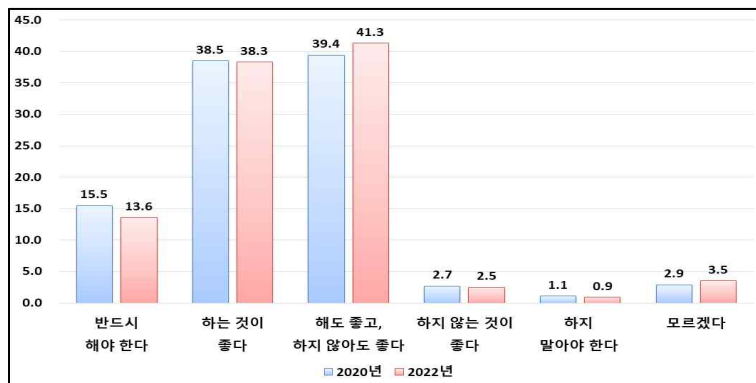
□ 부모 부양책임자

-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서 생활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「부모님 스스로 해결」이 83.8%, 다음으로 「모든 자녀 공동」 8.5%, 「장남」 5.6%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서 생활비 부담은 「부모님 스스로 해결」의 비율이 65.4%, 「모든 자녀 공동」 25.2%, 「장남」 5.9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□ 결혼에 대한 견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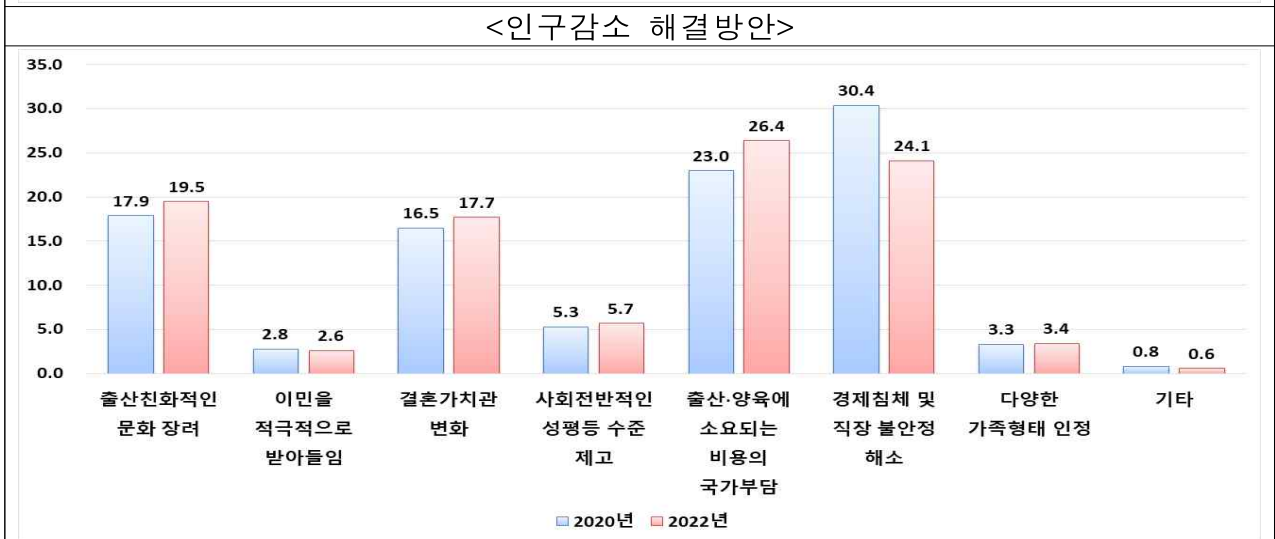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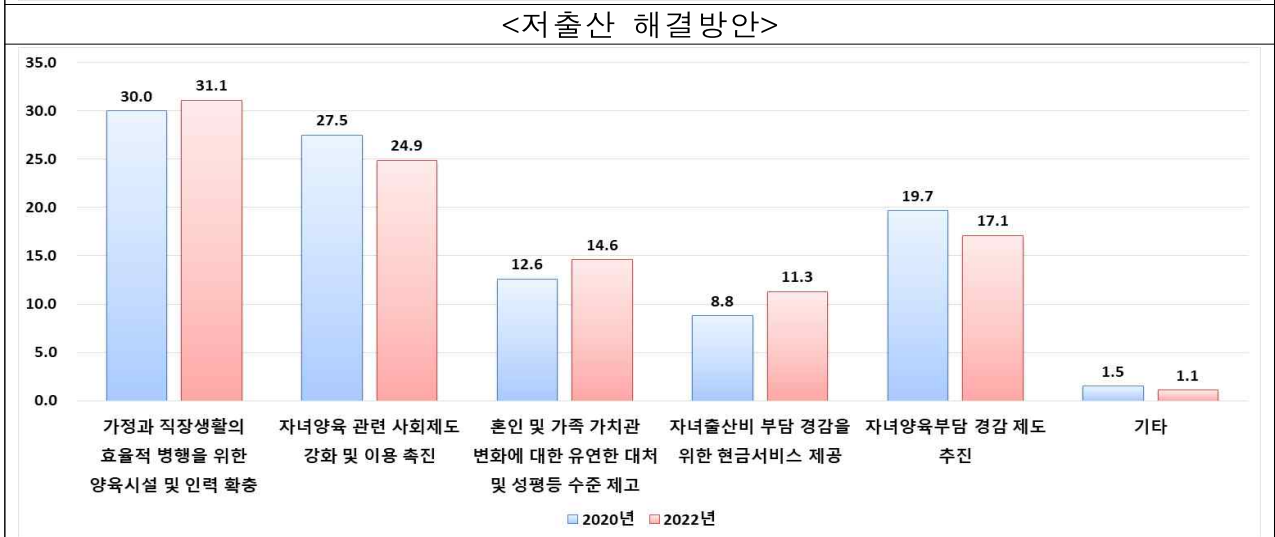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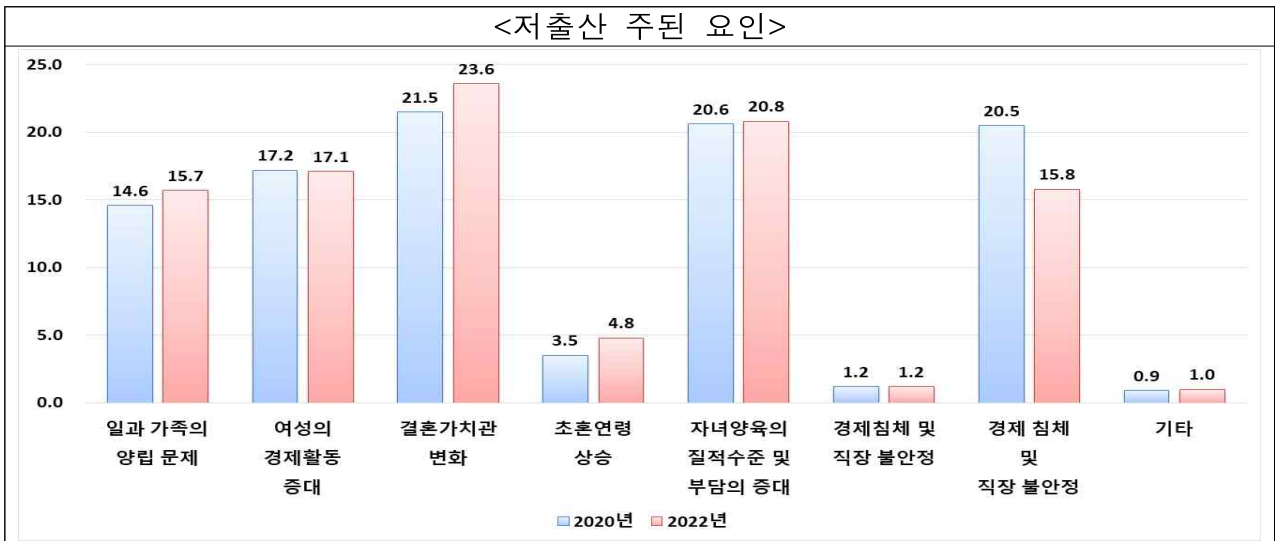
- 경남도민의 결혼에 대한 견해는 「해도 좋고, 하지 않아도 좋다」 41.3%로 2020년(39.4%)에 비해 1.9%p 증가, 「하는 것이 좋다」는 38.3%, 「반드시 해야 한다」 13.6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□ 저출산의 이유와 해결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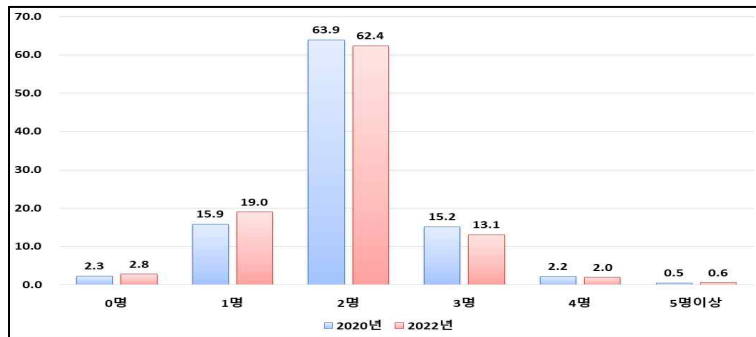
-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저출산의 주된 요인은 「결혼가치관 변화」 23.6%, 그 다음으로 「자녀양육의 질적 수준 및 부담의 증대」 20.8%, 「여성의 경제활동 증대」 17.1%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저출산 해결방안은 「가정과 직장생활의 효율적 병행을 위한 양육시설 확충」이 31.1%, 「자녀양육 관련 사회제도 강화 및 이용 촉진」 24.9%, 「자녀양육부담 경감 제도 추진」 17.1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○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인구감소 해결방안은 「출산·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국가부담」이 26.4%, 「경제침체 및 직장 불안정 해소」 24.1%, 「출산친화적인 문화장려」 19.5%, 「결혼가치관 변화」 17.7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□ 이상적인 자녀 수

-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「2명」 62.4%로 나타났으며, 그다음으로 「1명」 19.0%, 「3명」 13.1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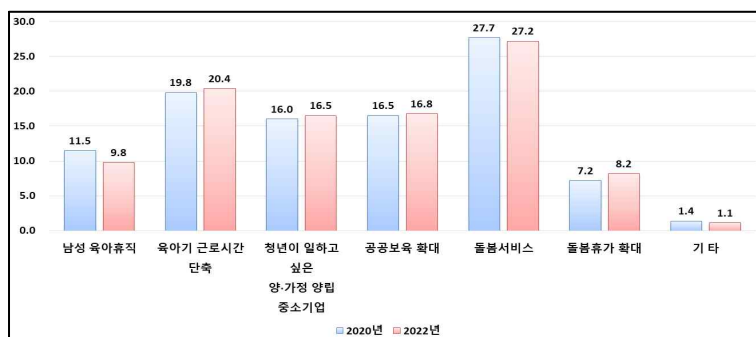
□ 미취학 자녀의 보육방법 및 보육시설 만족도

- 도내 가구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는 6.7%였으며, 미취학 자녀의 보육 방법은 「어린이집」이 44.0%, 「유치원」 31.4%, 「본인이나 배우자」 19.9%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보육시설 만족도는 「만족」이 68.1%, 「보통」 25.3%, 「불만족」 6.7% 순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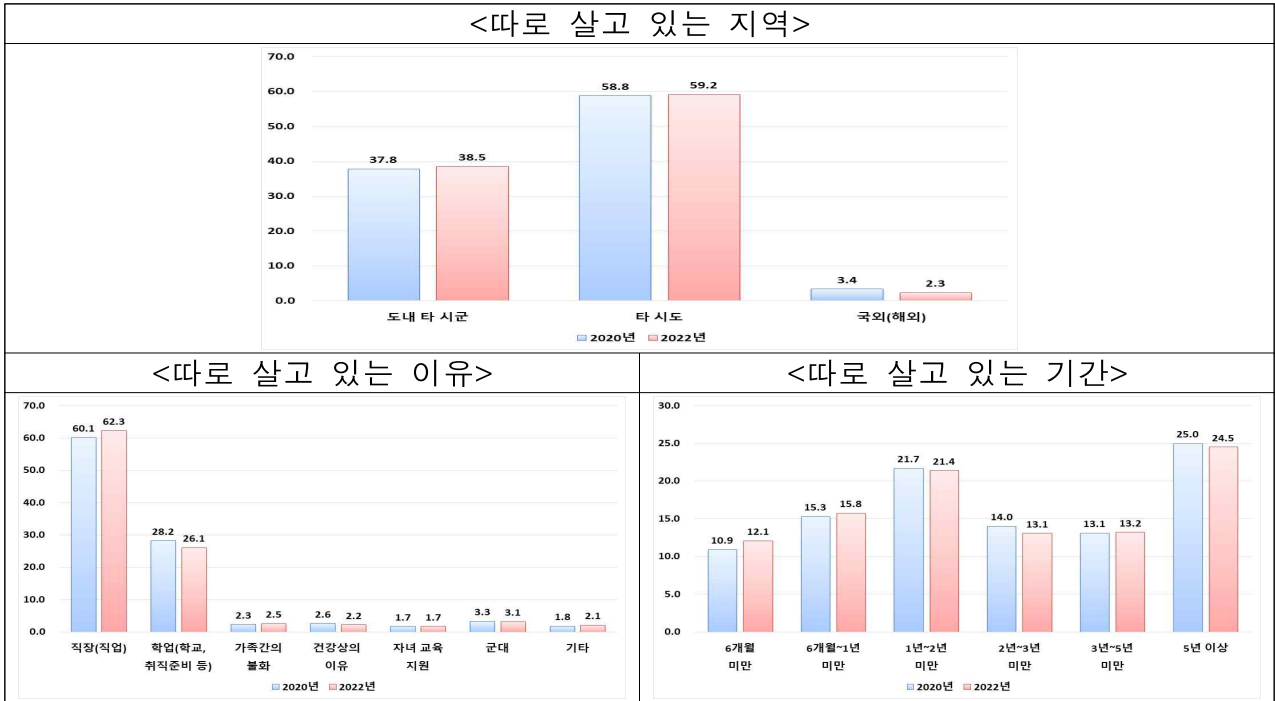
□ 자녀 양육을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

-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자녀 양육을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은 「돌봄서비스」가 27.2%, 「육아기 근로시간 단축」 20.4%, 「공공보육 확대」 16.8%, 「청년이 일하고 싶은 일·가정 양립 중소기업」 16.5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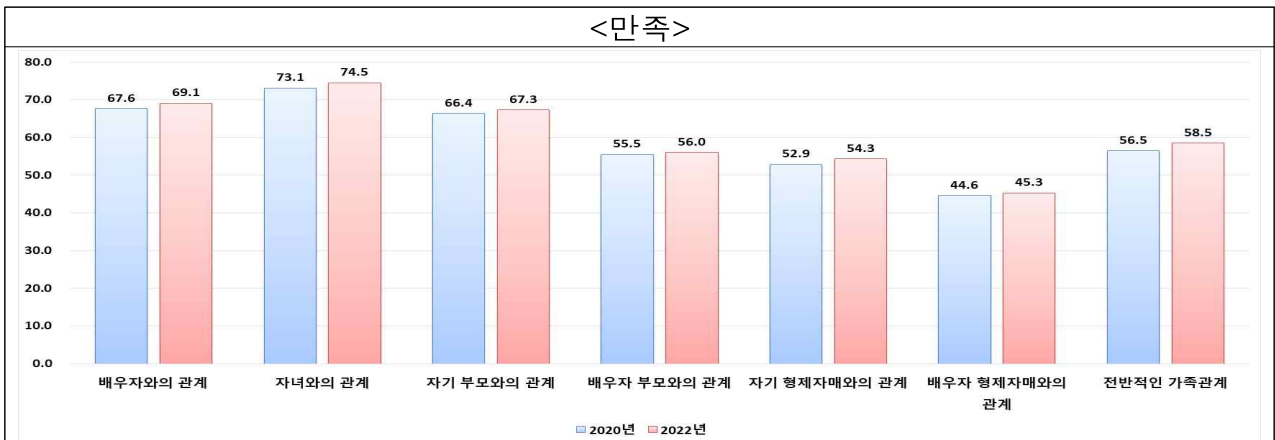
□ 분거 가족

- 경남도민 중 분거가족이 있는 가구는 21.8%이며, 가구당 평균 분거 가족수는 1.4명으로 나타났고, 따로 살고 있는 지역은 「타시도」가 59.2%, 「도내 타 시군」 38.5%, 「국외(해외)」 2.3%로 나타남
- 따로 살고 있는 이유는 「직장(직업)」이 62.3%, 「학업(학교, 취직준비 등)」 26.1%로 나타남
- 따로 살고 있는 기간은 「5년 이상」이 24.5%, 「1~2년 미만」 21.4%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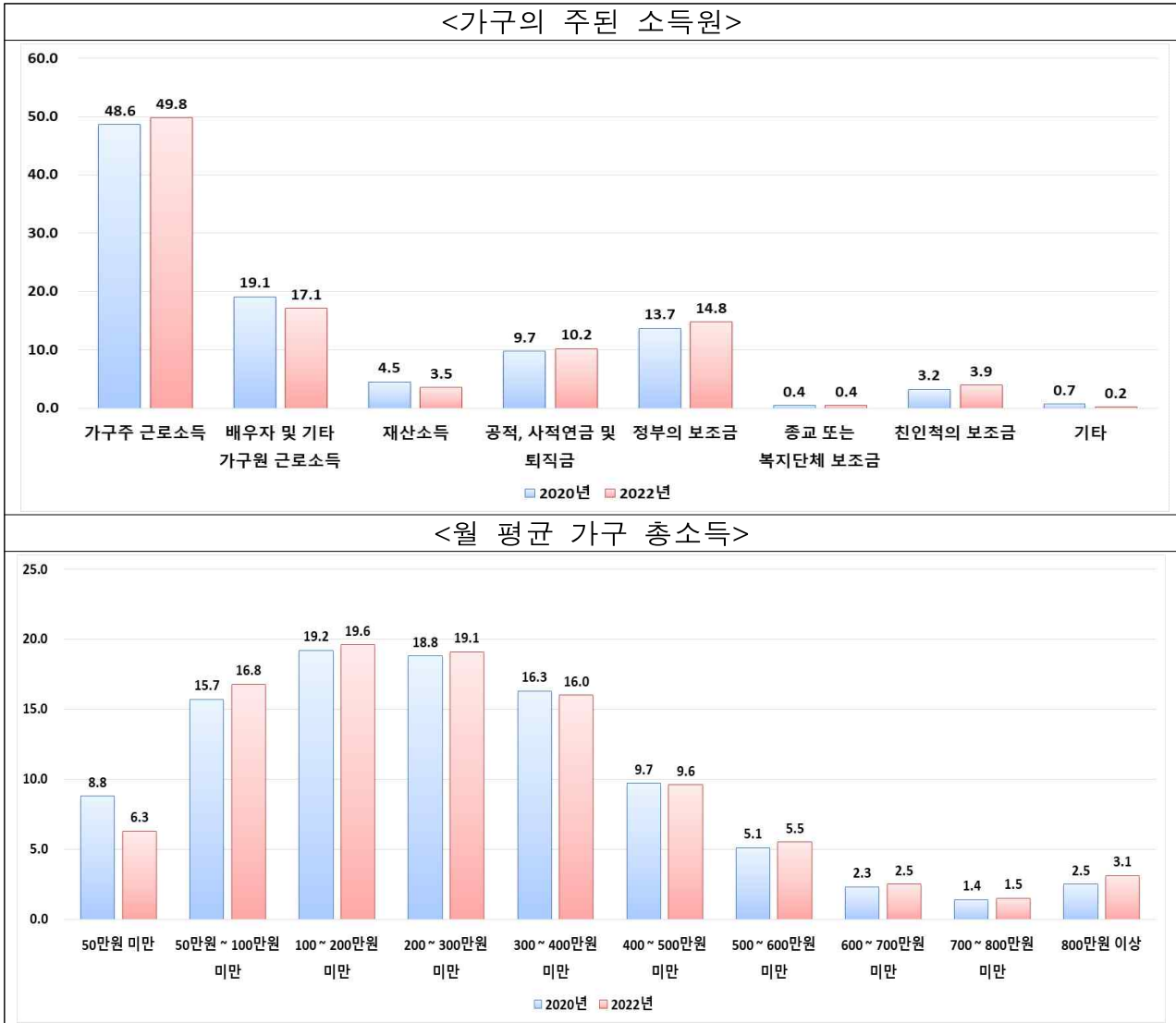
□ 가족관계 만족도

- 경남도민의 가족관계 만족도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은 「자녀와의 관계」가 74.5%로 나타났으며, 다음으로 「배우자와의 관계」 69.1%, 「나의 부모와의 관계」 67.3%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경남도민의 전반적인 가족관계는 58.5%가 「만족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, 「보통」 38.6%, 「불만족」 2.9%로 나타남



□ 월 평균 가구소득

- 경남도민의 주된 가구 소득원은 「가구주 근로소득」 49.8%로 나타났으며, 다음으로 「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 소득」 17.1%, 「정부의 보조금」 14.8%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월 평균 가구 총소득은 「100만원 미만」 23.1%, 「100~200만원 미만」 19.6%, 「200~300만원 미만」 19.1%, 「300~400만원 미만」 16.0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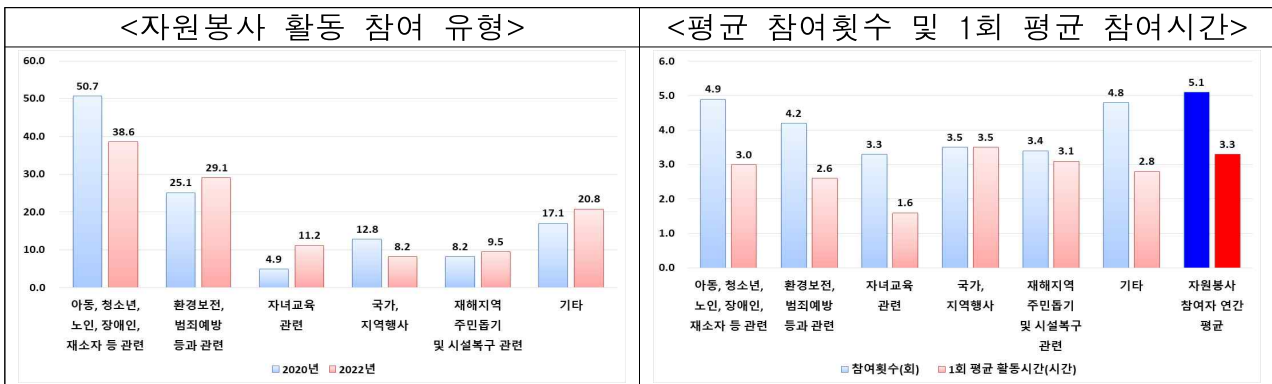


Ⅲ. 사회

□ 자원봉사활동 참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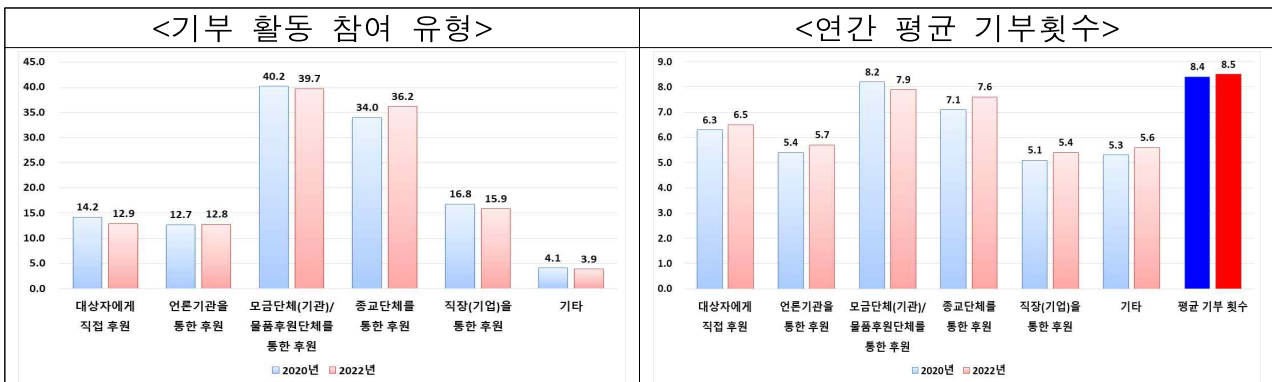
- 경남도민의 봉사활동 참여율은 5.8%로 나타났으며, 가장 높은 참여 유형은 「아동, 청소년, 노인, 장애인, 재소자 등 관련」 38.6%, 「환경보전, 범죄예방 등과 관련」 29.1%, 「국가 및 지역행사 등과 관련」 11.2%의 순으로 나타남
- 봉사활동 참여유형별 참여횟수 및 1회 평균 참여시간은 「아동, 청소년, 노인,

장애인, 재소자 등 관련」이 4.9회, 2.8시간으로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「기타」가 3.2회, 2.0시간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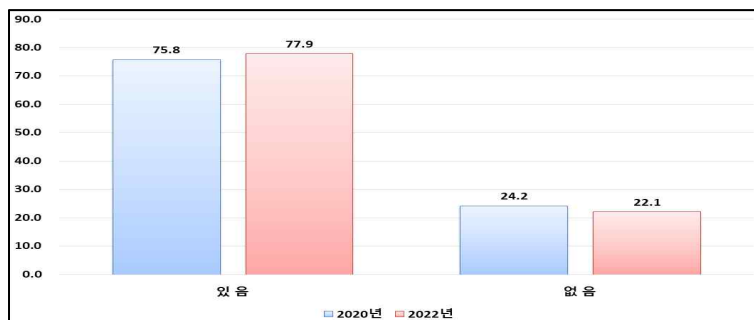
□ 기부참여

- 경남도민의 기부활동 참여율은 17.6%로 나타났으며, 가장 높은 참여 유형은 「모금단체(기관), 물품후원단체를 통한 기부」 39.7%, 「종교단체를 통한 기부」 36.2%, 「직장(기업, 지방자치단체)을 통한 기부」 15.9%의 순으로 나타남
- 경남도민의 연간 평균 기부횟수는 8.5회로 나타났으며, 참여유형별 참여횟수는 「모금단체(기관), 물품후원단체를 통한 기부」가 연간 평균 7.9회로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「종교단체를 통한 기부」 7.6회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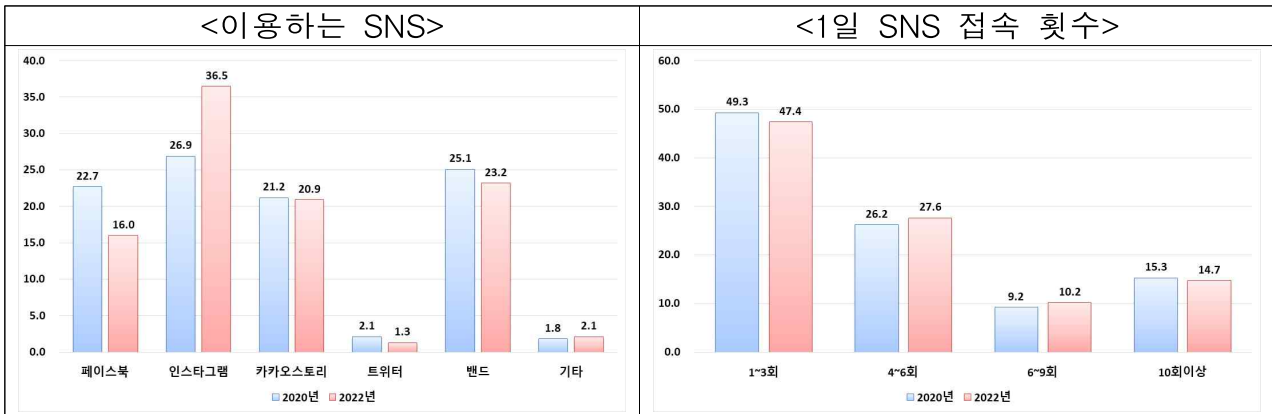
□ 사회적 지원

- 경남도민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「있음」이 77.9%이며, 평균인원은 3.8명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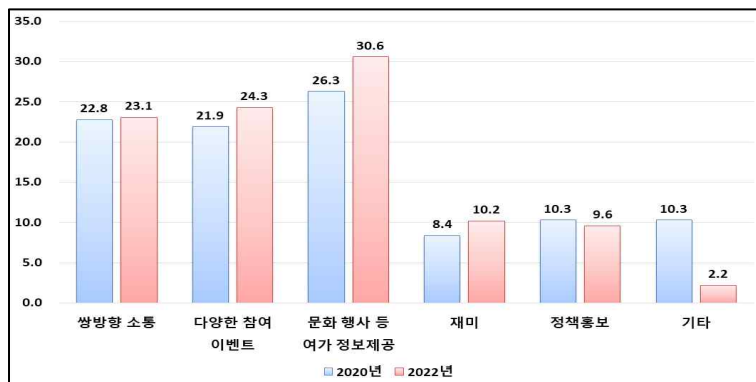
□ 사회관계망 서비스(SNS)

- 경남도민 중 49.6%는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는 「인스타그램」 36.5%였고, 다음으로 「밴드」 23.2%, 「카카오토키」 20.9%의 순으로 나타남
- 1일 SNS 접속 횟수는 「1~3회」 47.4%, 「4~6회」 27.6%, 「10회 이상」 14.7%의 순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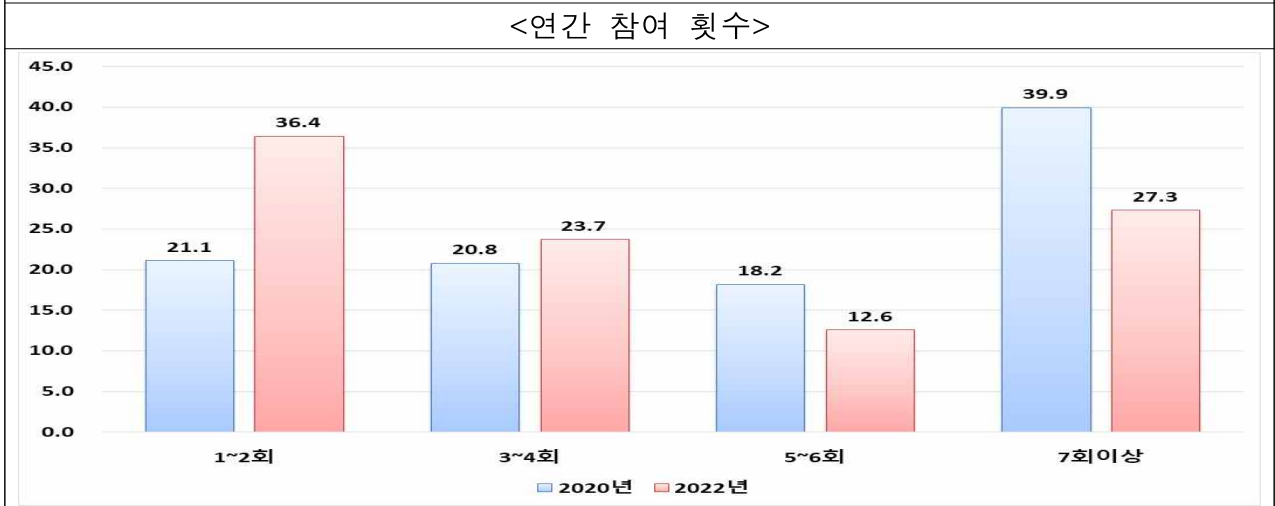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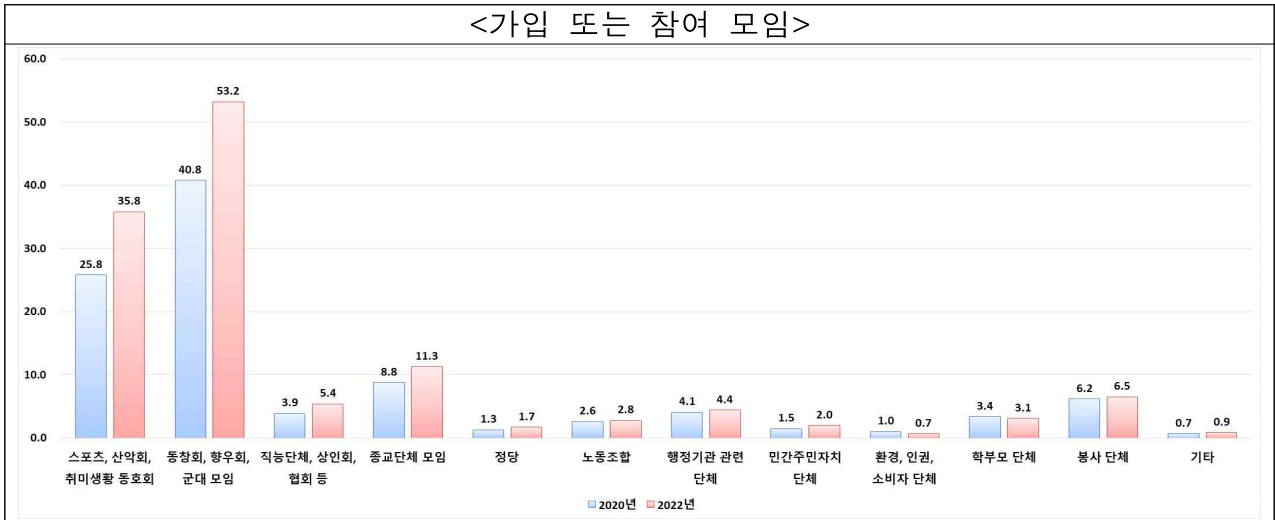
□ 관공서의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 구축

- 경남도민은 생각하는 관공서 SNS 이용시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은 「문화 행사 등 여가 정보제공」 30.6%, 「다양한 참여 이벤트」 24.3%, 「쌍방향 소통」 23.1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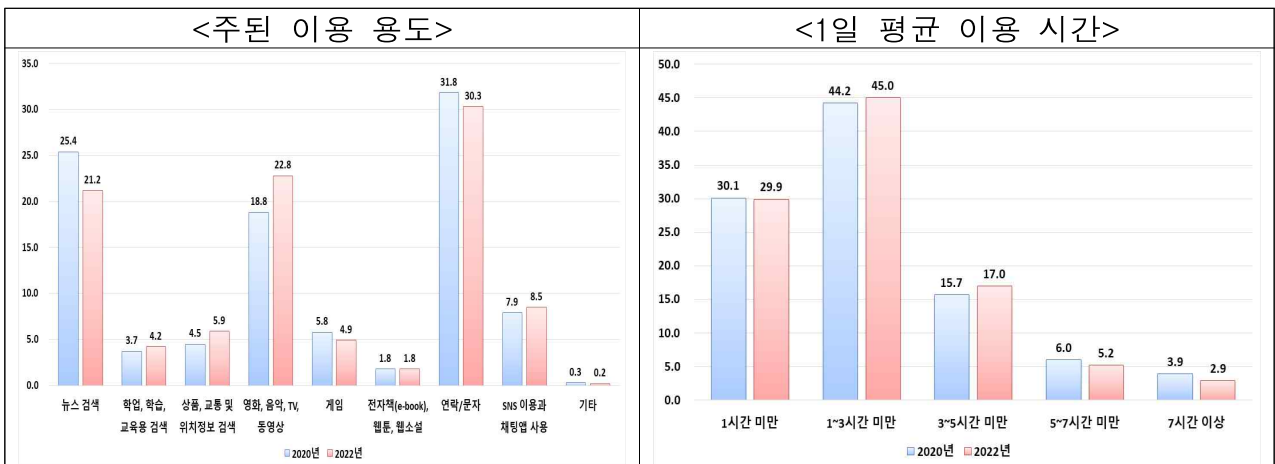
□ 사회 단체·모임 가입·참여

- 경남도민 중 31.4%는 사회 단체·모임에 가입 또는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가장 많이 참여하는 모임은 「동창회, 향우회, 군대 모임」 53.2%이 있으며, 다음으로 「스포츠, 산악회, 취미생활 동호회」 35.8%로 나타남
- 1년간 참여 횟수는 36.4%가 「1~2회」로 나타났고, 「7회 이상」 27.3%, 「3~4회」 23.7%의 순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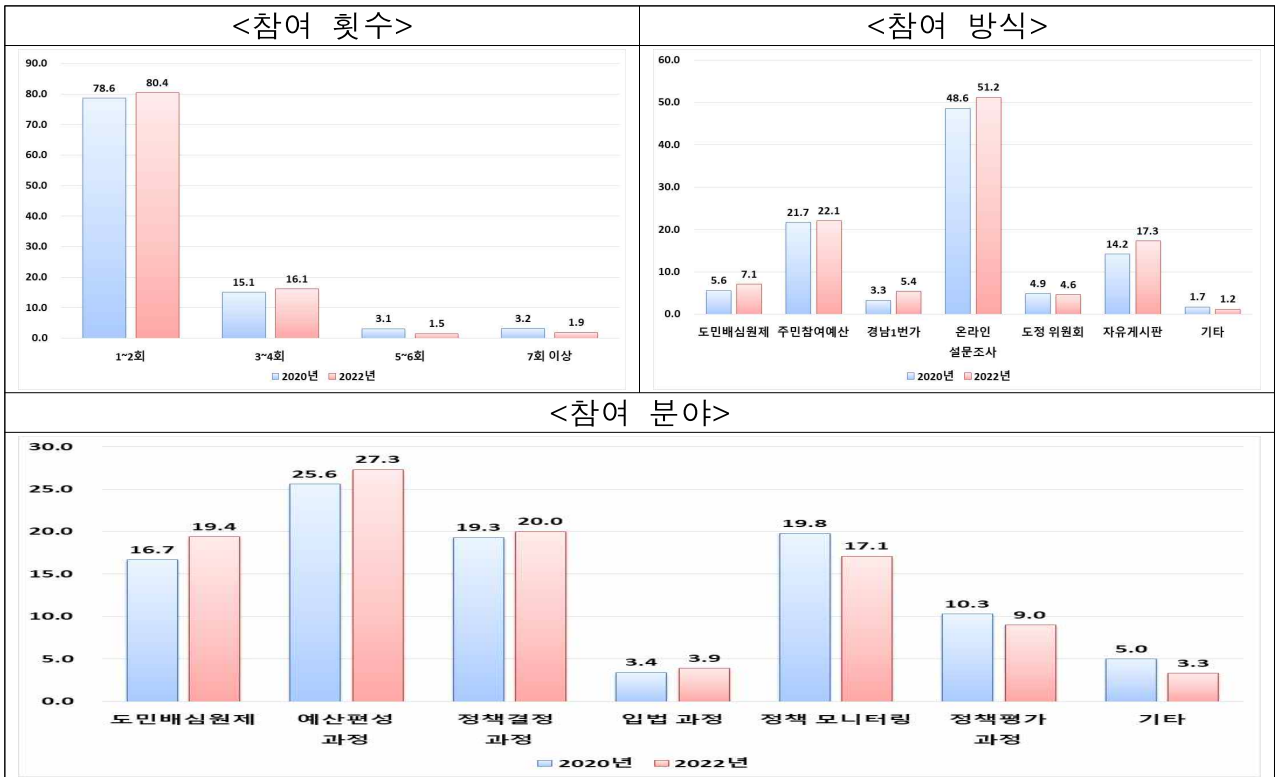
□ 스마트폰 이용

- 경남도민 중 90.7%는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주된 이용용도는 「연락/문자」가 30.3%, 「영화, 음악, TV, 동영상」 22.8%, 「뉴스 검색」 21.2% 등의 순임
- 1일 평균 이용시간은 「1~3시간 미만」 45.0%, 「1시간 미만」이 29.9%, 「3~5시간 미만」 17.0%의 순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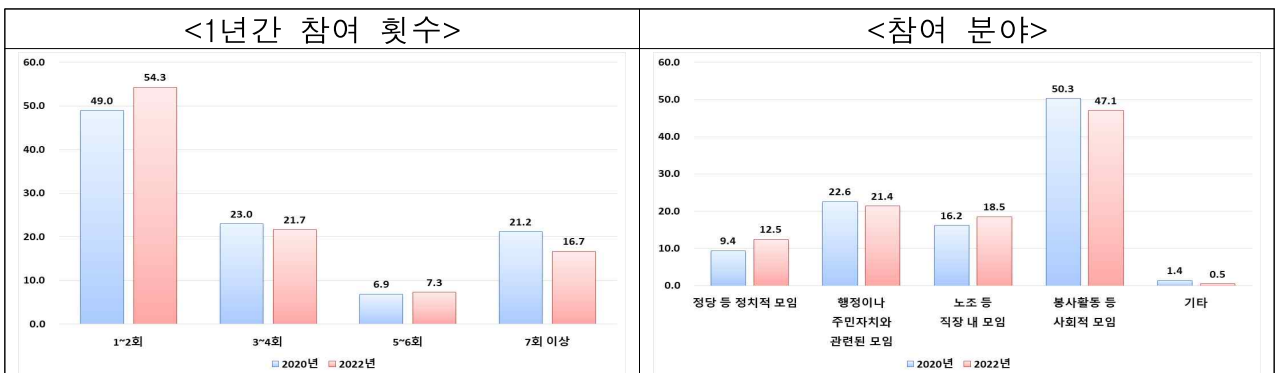
□ 도정 참여

- 경남도민 중 2.2%만이 도정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참여 횟수는 「1~2회」가 80.4%, 「3~4회」 16.1%로 나타남
- 도정 참여 방식은 「온라인 설문조사」가 51.2%였으며, 다음은 「주민참여예산」 22.1%, 「자유게시판」 17.3%로 나타남
- 도정 참여 분야는 「예산편성과정」이 27.3%였고, 다음은 「정책결정 과정」 20.0%, 「도민배심원제」 19.4%, 「정책 모니터링」 17.1%의 순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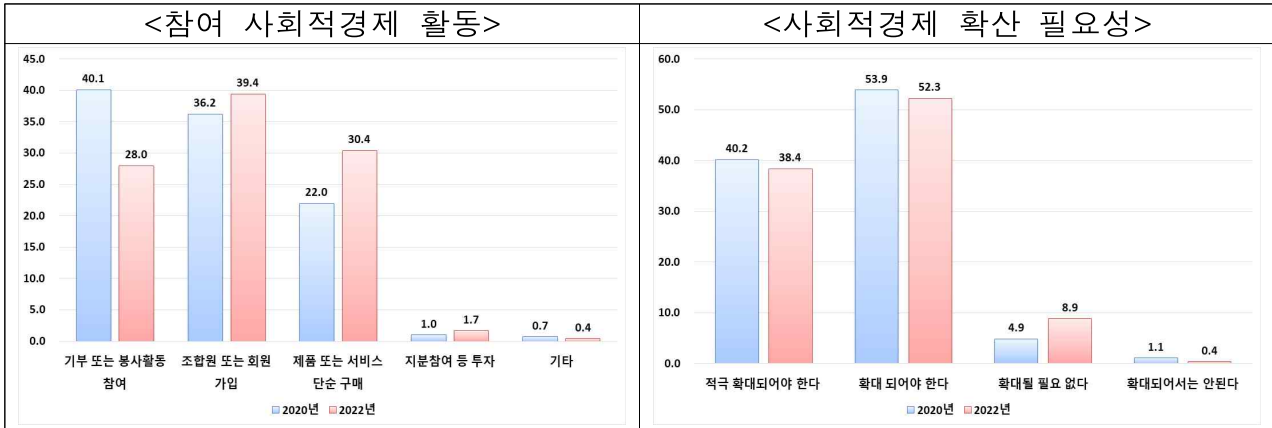
□ 사회문제 참여 여부 및 참여 분야

- 경남도민 중 4.2%는 사회문제 참여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참여 횟수는 「1~2회」 54.3%, 「3~4회」 21.7%, 「7회 이상」 16.7%로 나타남
- 사회문제 참여 분야는 「봉사활동 등 사회적 모임」이 47.1%, 「행정이나 주민 자치와 관련된 모임」 21.4%, 「노조 등 직장 내 모임」 18.5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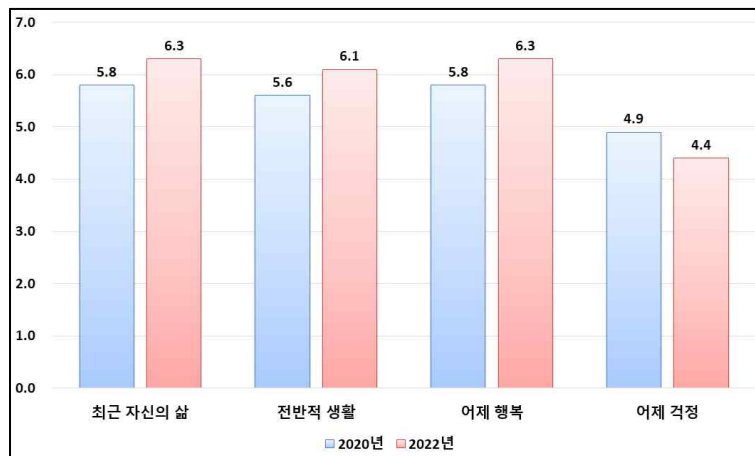
□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

- 경남도민 중 6.2%는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경험한 사회적경제 활동은 「조합원 또는 회원가입」이 39.4%, 「제품 또는 서비스 단순구매」 30.4%, 「기부 또는 봉사활동 참여」 28.0%의 순으로 나타남
- 사회적경제 확산 필요성에 대해 「확대되어야 한다」 52.3%, 「적극 확대되어야 한다」 38.4% 등으로 나타남



□ 삶에 대한 만족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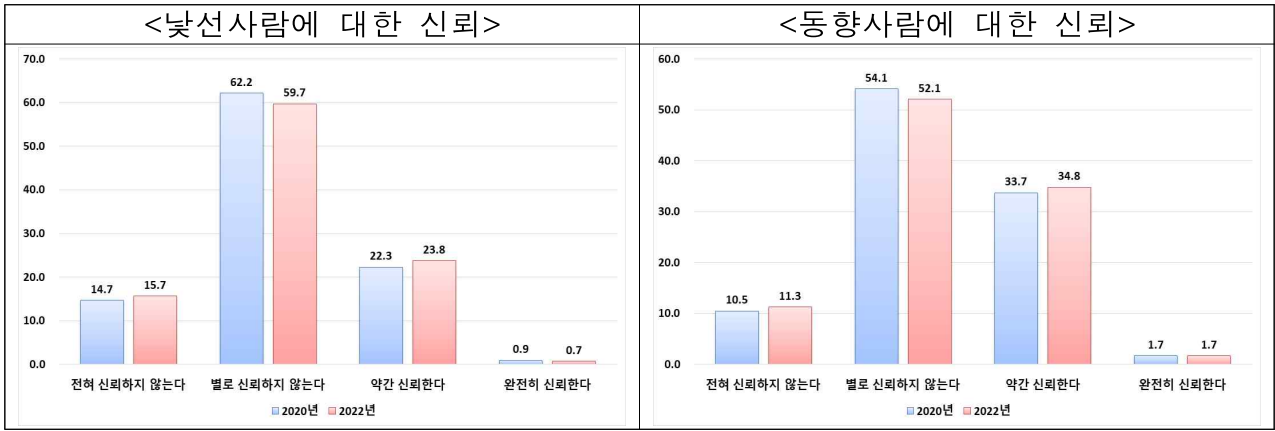
- 경남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감 중 「최근 자신의 삶」¹⁾에 대한 만족도는 6.3점으로 나타났으며, 「전반적 생활」에 대한 만족도는 6.1점, 「어제의 행복」은 6.3점, 「어제의 걱정」은 4.4점으로 나타남



□ 일반인에 대한 신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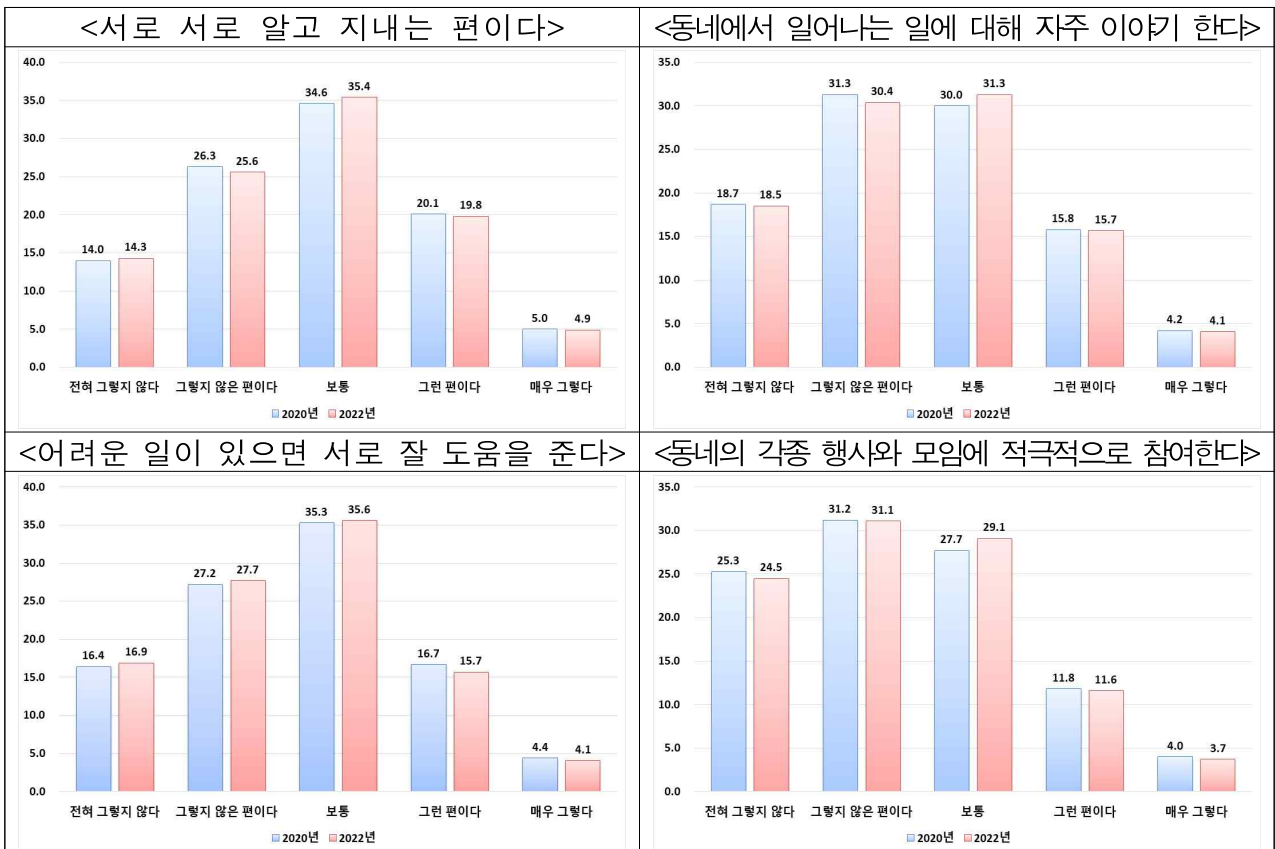
- 경남도민의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는 「신뢰하지 않는다」가 75.4%로 나타났으며, 동향사람에 대한 신뢰는 「신뢰하지 않는다」가 63.4%로 나타남
- 경남도민의 일반인에 대한 신뢰는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가 더 낮았음

1) 만족도의 최저점수는 0점, 최고점수는 10점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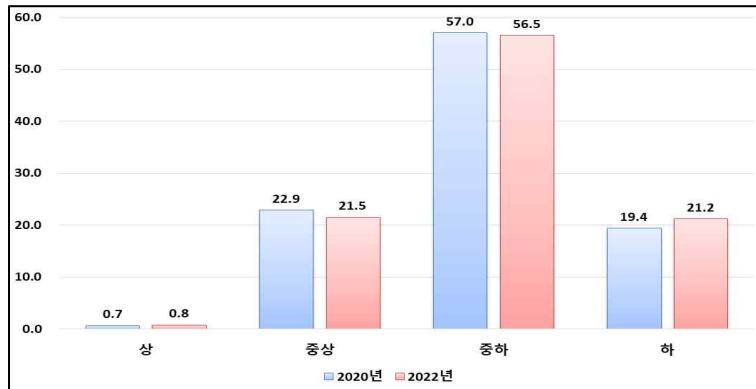
□ 공동체 의식

- 경남도민의 동네 사람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보면, “서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”에 대해 「그렇지 않은 편이다」가 39.9%, 「그런 편이다」가 24.7%로 나타남
- “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”에 대해 「그렇지 않은 편이다」가 48.9%, 「그런 편이다」가 19.8%로 나타남
- “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움을 준다”에 대해 「그렇지 않은 편이다」가 44.6%, 「그런 편이다」가 19.8%로 나타남
- “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”에 대해 「그렇지 않은 편이다」가 55.6%, 「그런 편이다」가 15.3%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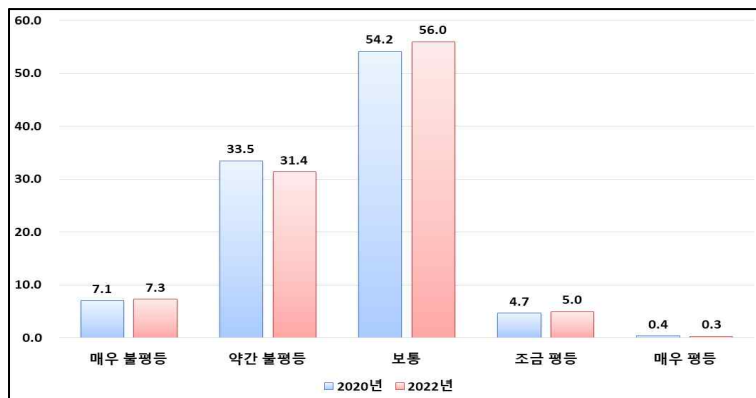
□ 사회적 계층 의식

- 경남도민의 사회적 계층의식을 보면, 56.5%가 「중하」에 속한다고 인식하였으며, 21.5%는 「중상」에 속한다고 인식함. 「하」는 21.2%, 「상」은 0.8%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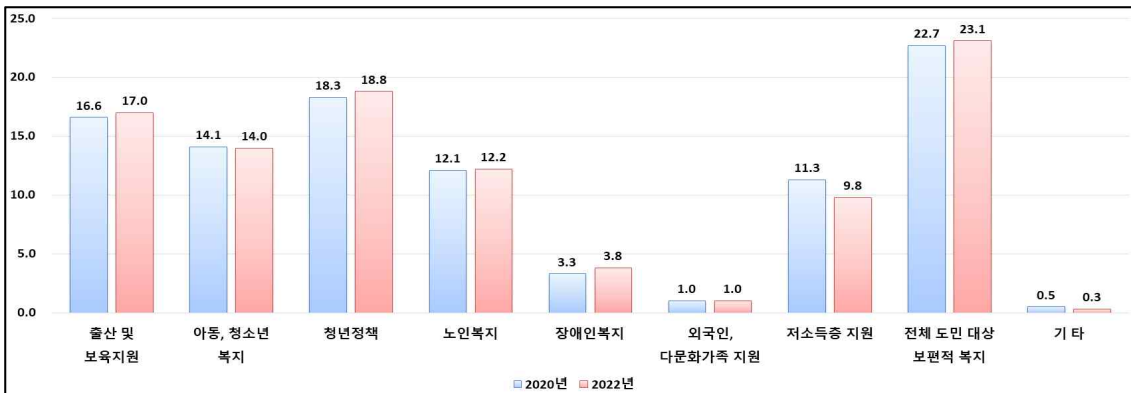
□ 소득 불평등 정도

- 경남도민의 소득불평등 정도에 대한 생각은 「약간 불평등」 31.4%, 「매우 불평등」 7.3%로 38.7%는 소득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하였고, 「조금 평등」 5.0%, 「매우 평등」 0.3%로 평등하다는 인식은 5.3%로 나타남



□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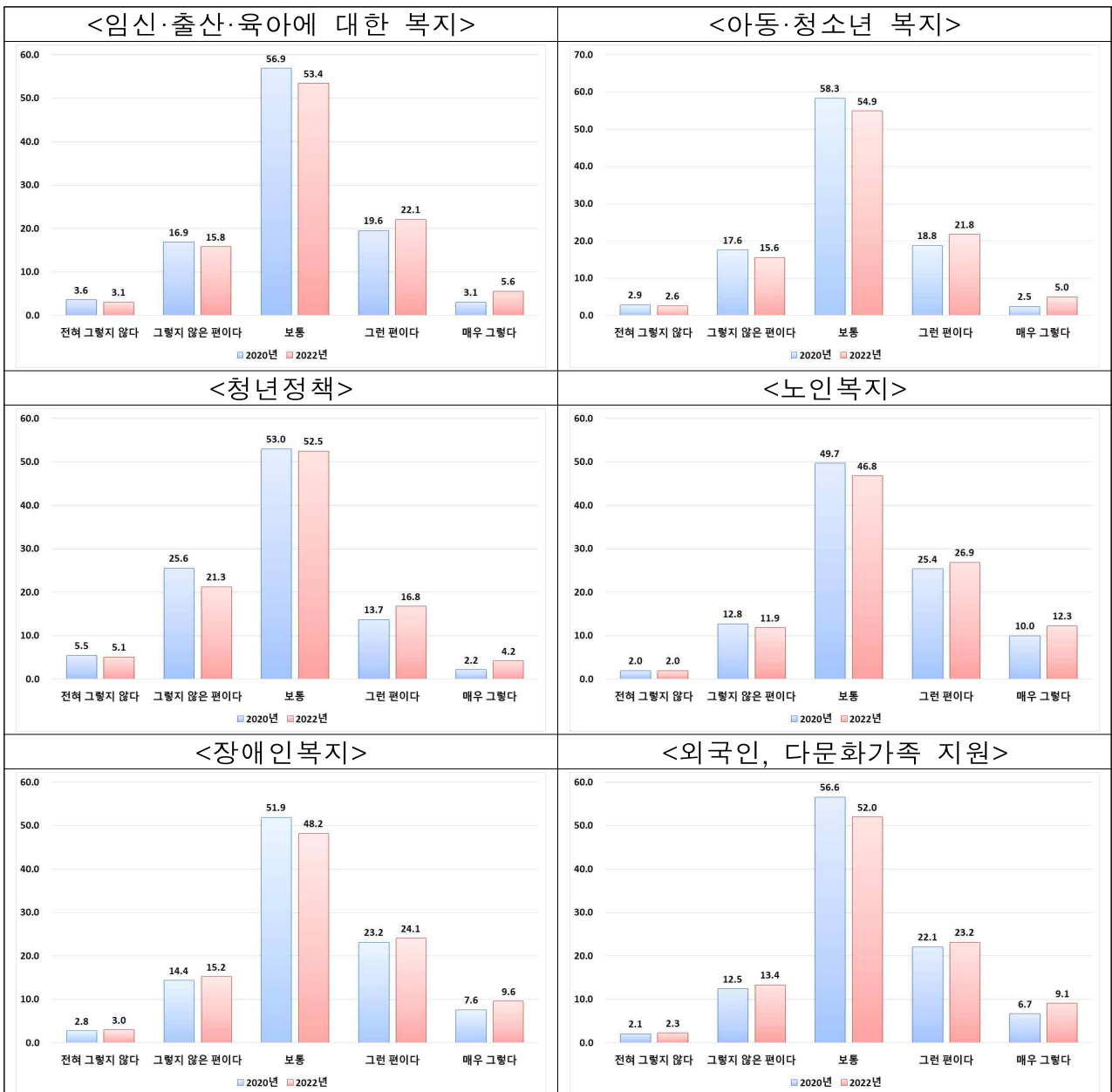
- 경남도민은 사회복지를 위해 우선 지원해야 할 분야로 23.1%가 「전체 도민 대상 보편적 복지」를 선택, 다음으로는 「청년정책」 18.8%, 「출산 및 보육지원」 17.0%, 「아동, 청소년 복지」 14.0%의 순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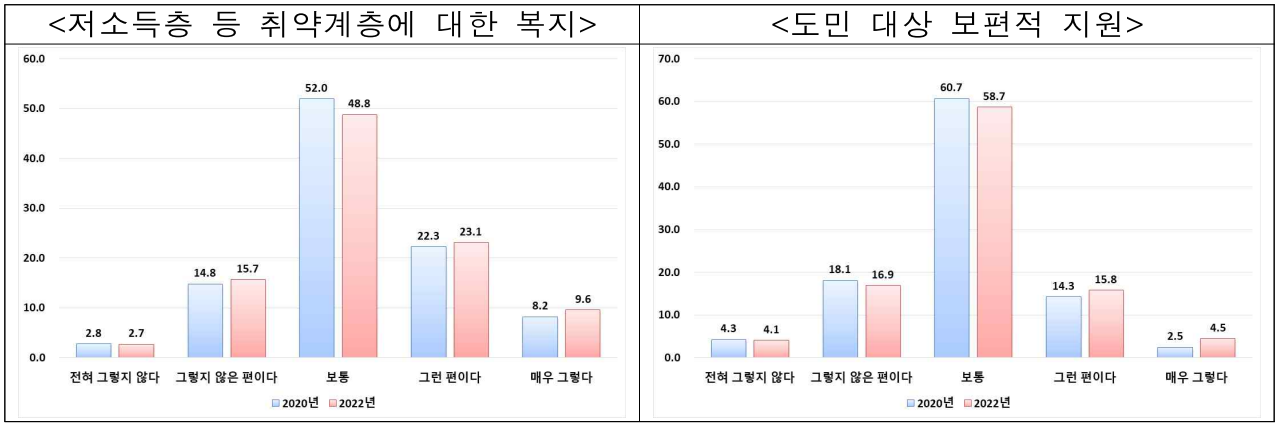


□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

○ 경남도민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「노인복지」에 대한 만족이 39.2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다음으로 「장애인복지」 33.7%, 「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」 32.7%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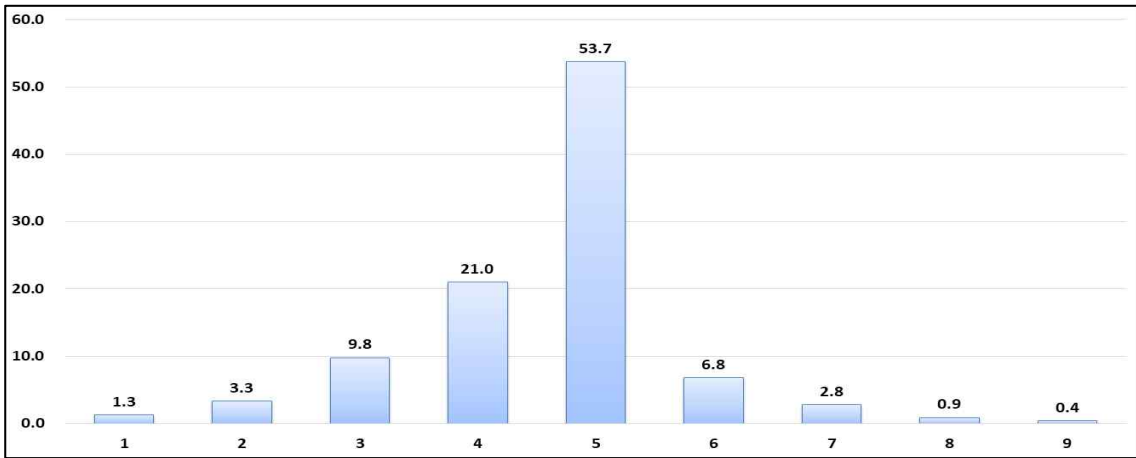
- 임신·출산·육아 분야 복지에 대한 「만족」이 27.7%, 「불만족」은 18.9%로 나타남
- 아동·청소년 복지에 대한 「만족」이 26.8%, 「불만족」은 18.2%로 나타남
- 청년정책에 대한 「만족」이 21.0%, 「불만족」은 26.4%로 나타남
- 노인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「만족」이 39.2%, 「불만족」은 13.9%로 나타남
- 장애인복지에 대한 「만족」이 33.7%, 「불만족」은 18.2%로 나타남
- 외국인,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「만족」이 32.3%, 「불만족」은 15.7%로 나타남
-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복지에 대한 「만족」이 32.7%, 「불만족」은 18.4%로 나타남
- 도민 대상 보편적 지원에 대한 「만족」이 20.3%, 「불만족」은 21.0%임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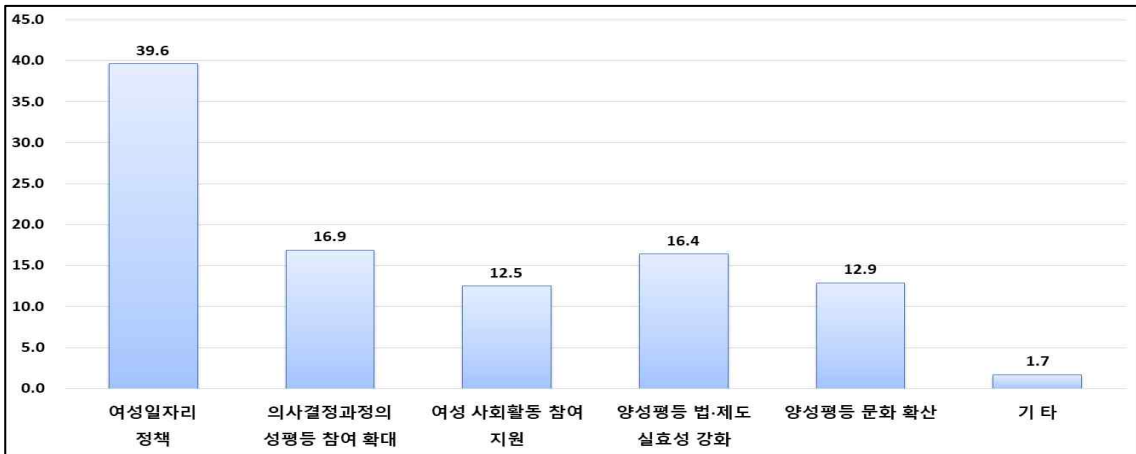
□ 양성 평등 수준

- 경남도민의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은 평균 4.6점²⁾으로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는 의견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남



□ 양성평등 우선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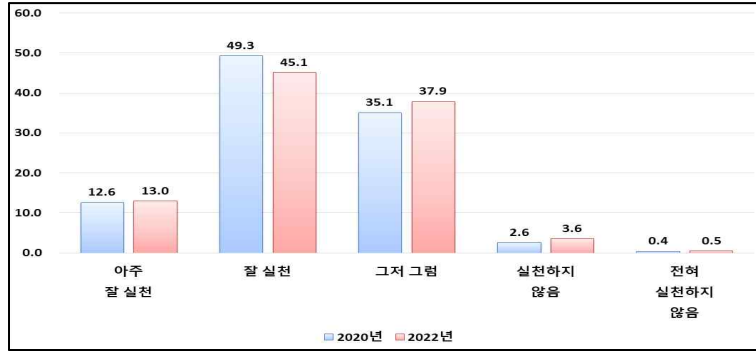
-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은 「여성일자리 정책」 39.6%, 「의사결정과정의 성평등 참여 확대」 16.9%, 「양성평등 법·제도 실효성 강화」 16.4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2) 양성평등 수준은 '여성이 매우 불평등' 1점에서 '남녀평등' 5점, '남성이 매우 불평등' 10점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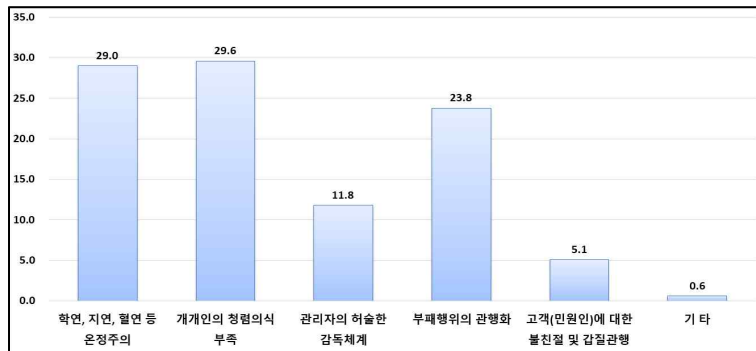
□ 에너지 절약 실천

- 경남도민 중 「에너지 절약을 알고 있다」는 도민은 51.6%로 나타남
- 에너지 절약을 「아주 잘 실천」한다는 도민은 13.0%, 「잘 실천」한다는 45.1%로 에너지 절약을 「실천」하는 도민은 58.1%, 「(전혀) 실천하지 않음」은 4.1%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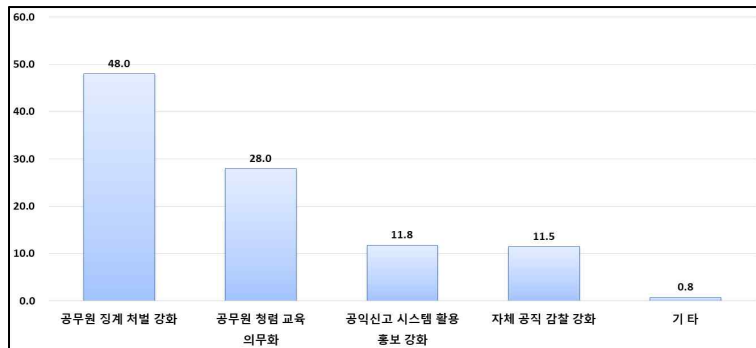
□ 공무원 부패행위 원인

-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공무원 부패행위 원인은 「개개인의 청렴의식 부족」 29.6%, 「학연, 지연, 혈연 등 온정주의」 29.0%, 「부패행위의 관행화」 23.8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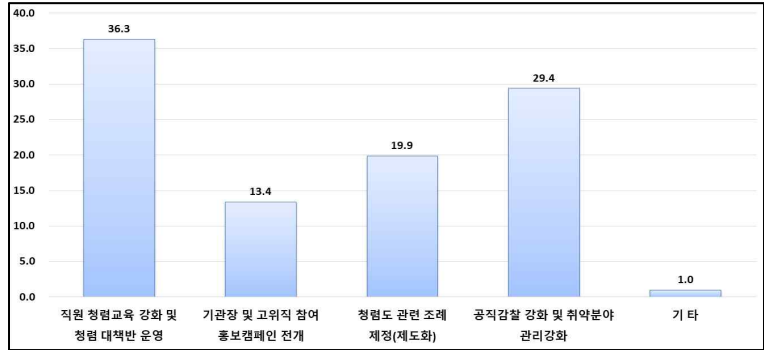
□ 공무원 부패행위 척결을 위한 개선 사항

-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공무원 부패행위 척결을 위한 개선 사항은 「공무원 징계 처벌 강화」 48.0%, 「공무원 청렴 교육 의무화」 28.0%, 「공익신고 시스템 활용 홍보 강화」 11.8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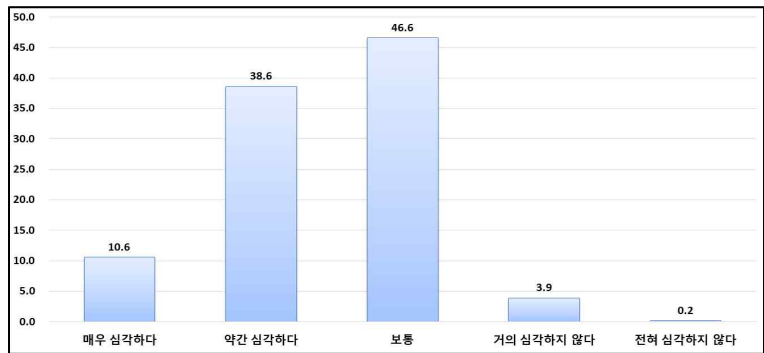
□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우선 사항

-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우선 사항은 「직원 청렴교육 강화 및 청렴 대책반 운영」 36.3%, 「공직감찰 강화 및 취약분야 관리강화」 29.4%, 「청렴도 관련 조례 제정」 19.9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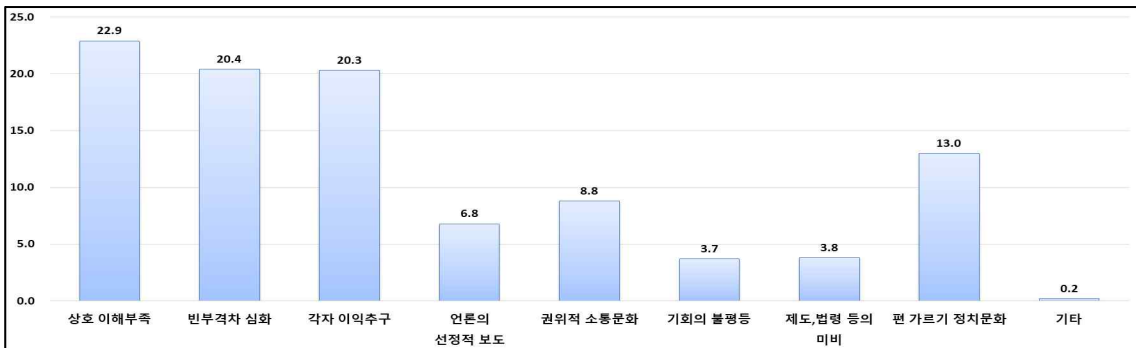
□ 공공갈등 심각 정도

-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공공갈등 심각 정도는 「매우 심각하다」 10.6%, 「약간 심각하다」 38.6%로 49.2%는 공공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였고, 「거의 심각하지 않다」 3.9%, 「전혀 심각하지 않다」 0.2%로 4.1%는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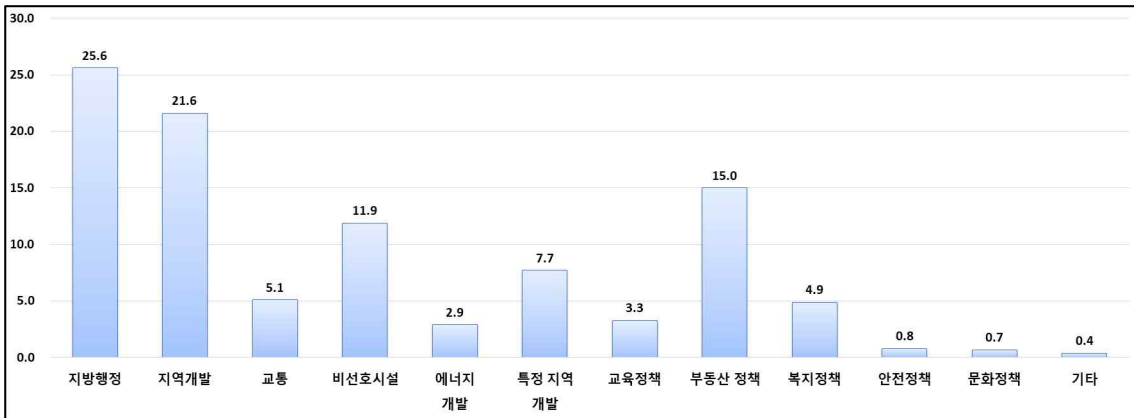
□ 공공갈등 발생 원인

-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공공갈등 발생 원인은 「상호 이해부족」 22.9%, 「빈부 격차 심화」 20.4%, 「각자 이익추구」 20.3%, 「편 가르기 정치문화」 13.0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□ 공공갈등 분야

-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공공갈등 분야는 「지방행정」 25.6%, 「지역개발」 21.6%, 「부동산 정책」 15.0%, 「비선호시설」 11.9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□ 효과적인 공공갈등 관리

-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공공갈등 관리는 「대화과 토론, 협상 등의 소통문화 정착」 30.1%, 「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」 24.6%, 「갈등을 유발하는 제도와 정책의 정비」 21.0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IV. 안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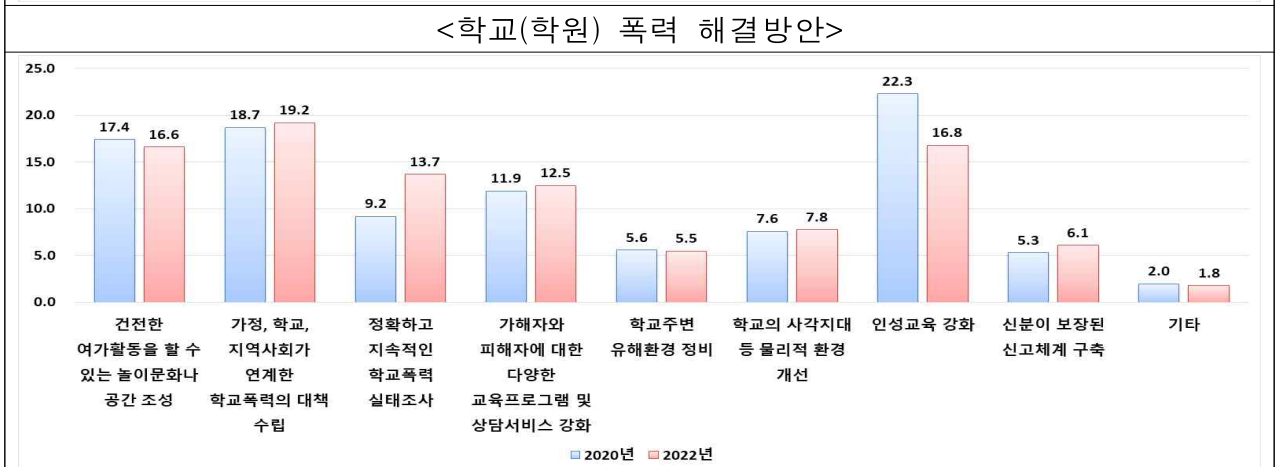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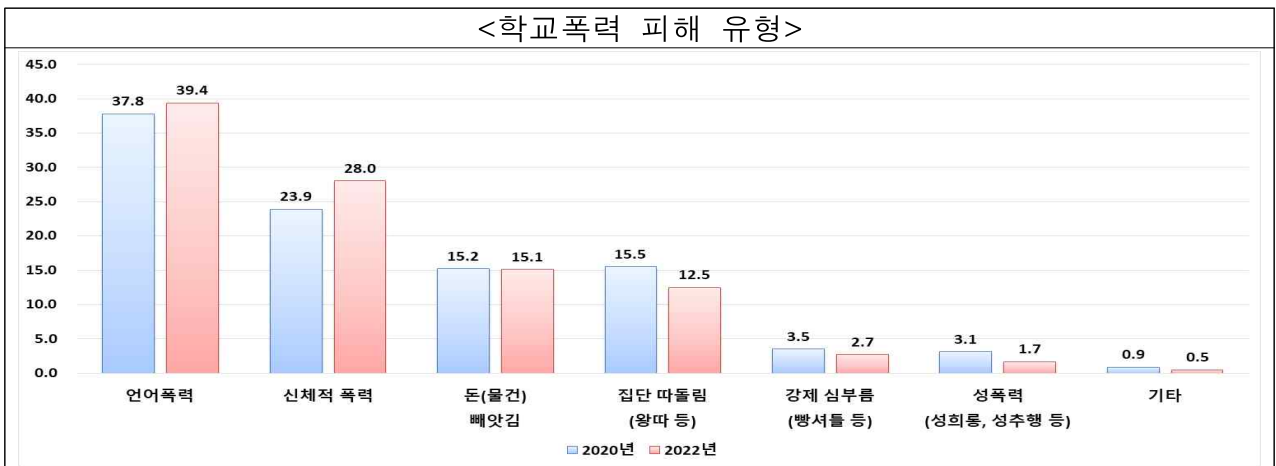
□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

- 경남도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“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”와 “밤에 혼자 지역(동네) 골목길을 걸을 때”로 나누어 살펴보면, “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” 「두렵지 않다」가 69.4%, 「두렵다」가 9.2%로 나타났으며, “밤에 혼자 지역(동네) 골목길을 걸을 때” 「두렵지 않다」 58.3%, 「두렵다」 18.3%로 나타남



□ 학교(학원)폭력 해결 최우선 추진 분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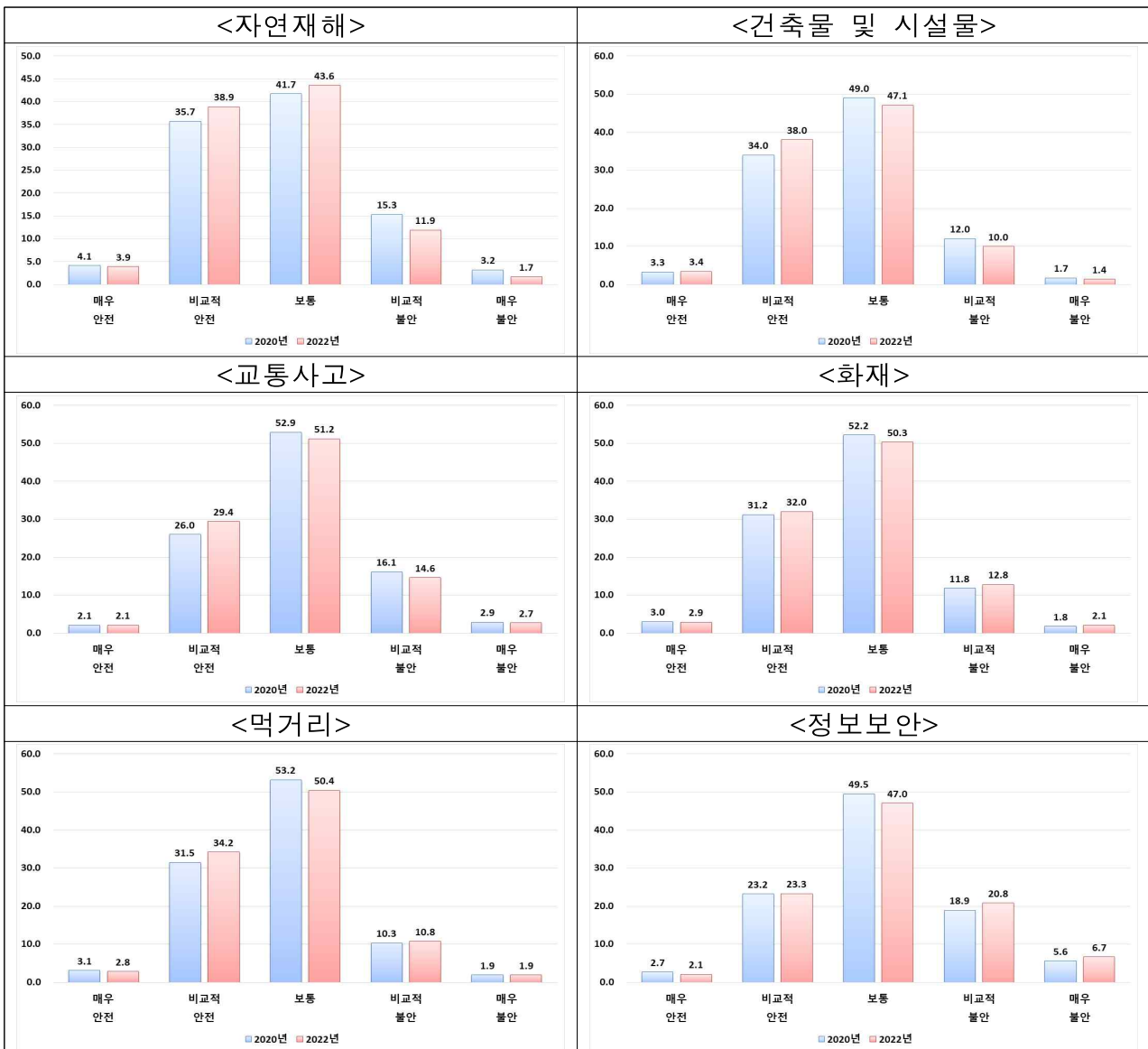
- 경남도민 중 학교(학원)폭력 피해 경험은 11.5%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피해 유형은 「언어폭력」 39.4%, 「신체적 폭력」 28.0%, 「돈(물건) 빼앗김」 15.1%, 「집단 따돌림」 12.5%의 순임
-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학교(학원)폭력 해결방안은 「가정, 학교, 지역사회가 연계한 학교폭력의 대책 수립」 19.2%, 「인성교육 강화」 16.8%, 「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문화나 공간 조성」 16.6%의 순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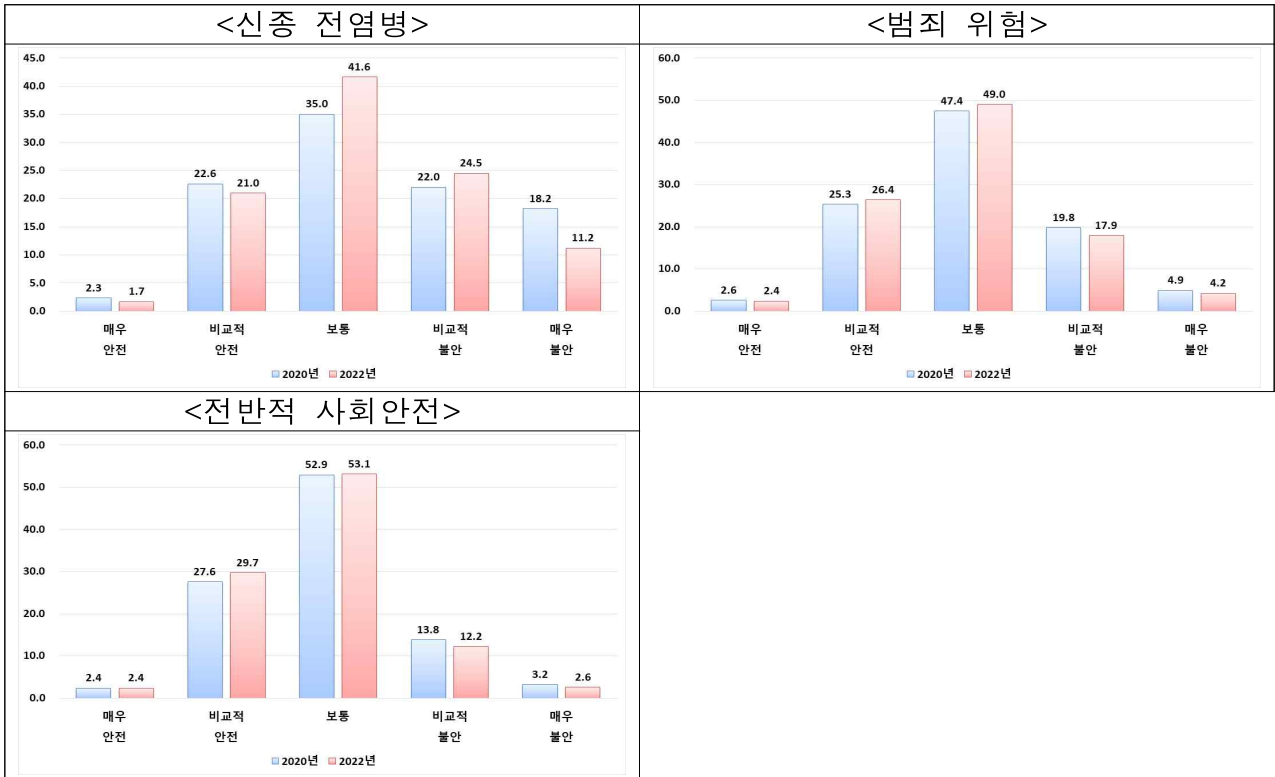


□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

○ 경남도민의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는 “자연재해” 대해 「안전」하다는 응답이 42.8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다음으로 “건축물” 41.4%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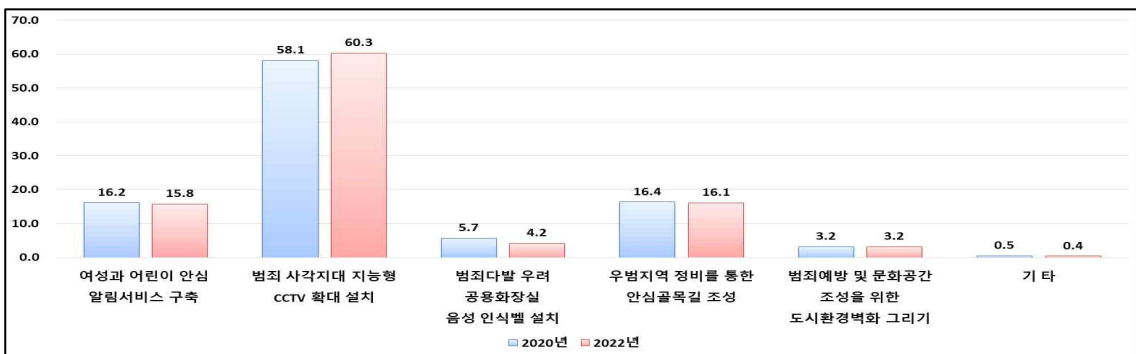
- 자연재해에 대한 평가는 「안전」 42.8%, 「불안」 13.6%로 나타남
- 건축물에 대한 평가는 「안전」 41.4%, 「불안」 11.4%로 나타남
- 교통사고에 대한 평가는 「안전」 31.5%, 「불안」 17.3%로 나타남
- 화재에 대한 평가는 「안전」 34.9%, 「불안」 14.9%로 나타남
- 먹거리에 대한 평가는 「안전」 37.0%, 「불안」 12.7%로 나타남
- 정보보안에 대한 평가는 「안전」 25.4%, 「불안」 27.5%로 나타남
- 신종전염병에 대한 평가는 「안전」 22.7%, 「불안」 35.7%로 나타남
- 범죄위험에 대한 평가는 「안전」 28.8%, 「불안」 22.1%로 나타남
- 전반적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는 「안전」 32.1%, 「불안」 14.8%로 나타남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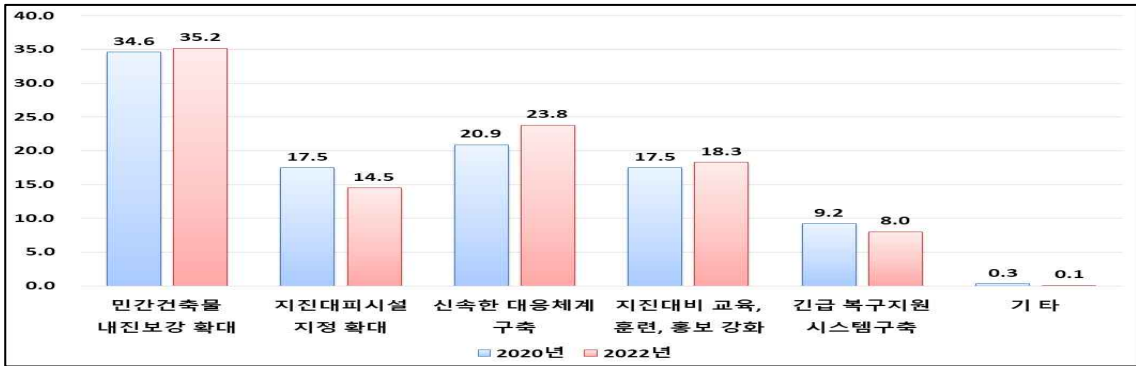
□ **범죄환경 예방도시 조성사업 우선 분야**

- 경남도민은 범죄환경 예방을 위해 60.3%가 「범죄 사각지대 지능형 CCTV 확대설치」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, 다음으로 「우범지역 정비를 통한 안심골목길 조성」 16.1%, 「여성과 어린이 안심 알림서비스 구축」 15.8% 등의 순으로 응답



□ **지진방재시스템 강화 우선 추진**

- 경남도민은 지진방재시스템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35.2%가 「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확대」라고 응답하였고, 다음으로는 「신속한 대응체계 구축」 23.8%, 「지진대비 교육, 훈련, 홍보 강화」 18.3%, 「지진대피시설 지정 확대」 14.5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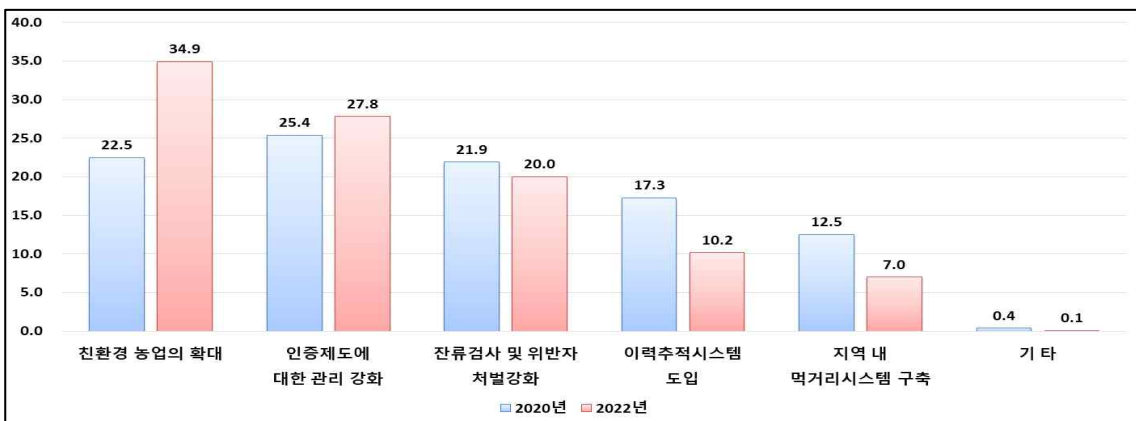
□ 농축수산물 인증제도 인식 정도

- 농축수산물 인증제도에 대해 「안다」는 27.8%였으며, 「모른다」는 도민은 35.6%로 나타남



□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 필요 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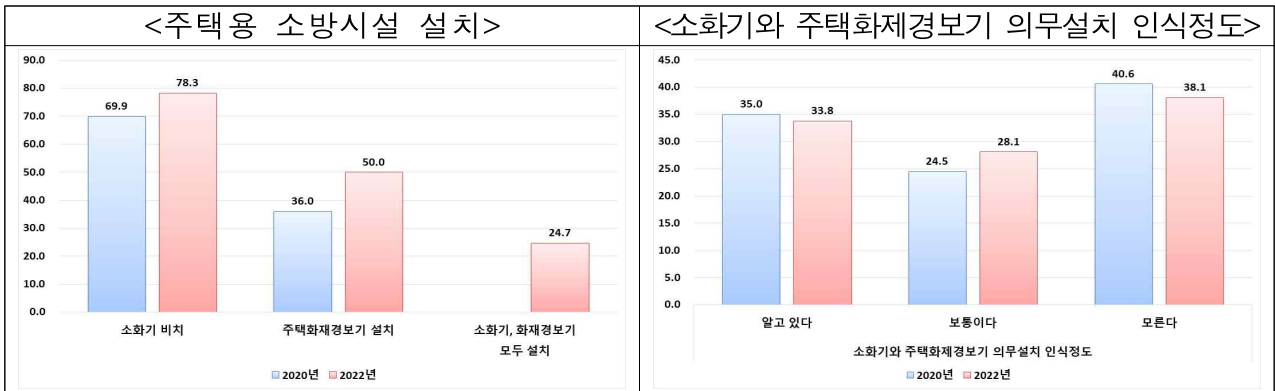
-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34.9%가 「친환경 농업의 확대」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, 다음으로 27.8%가 「인증제도에 대한 관리강화」, 20.0%가 「잔류검사 및 위반자 처벌 강화」가 필요하다고 응답



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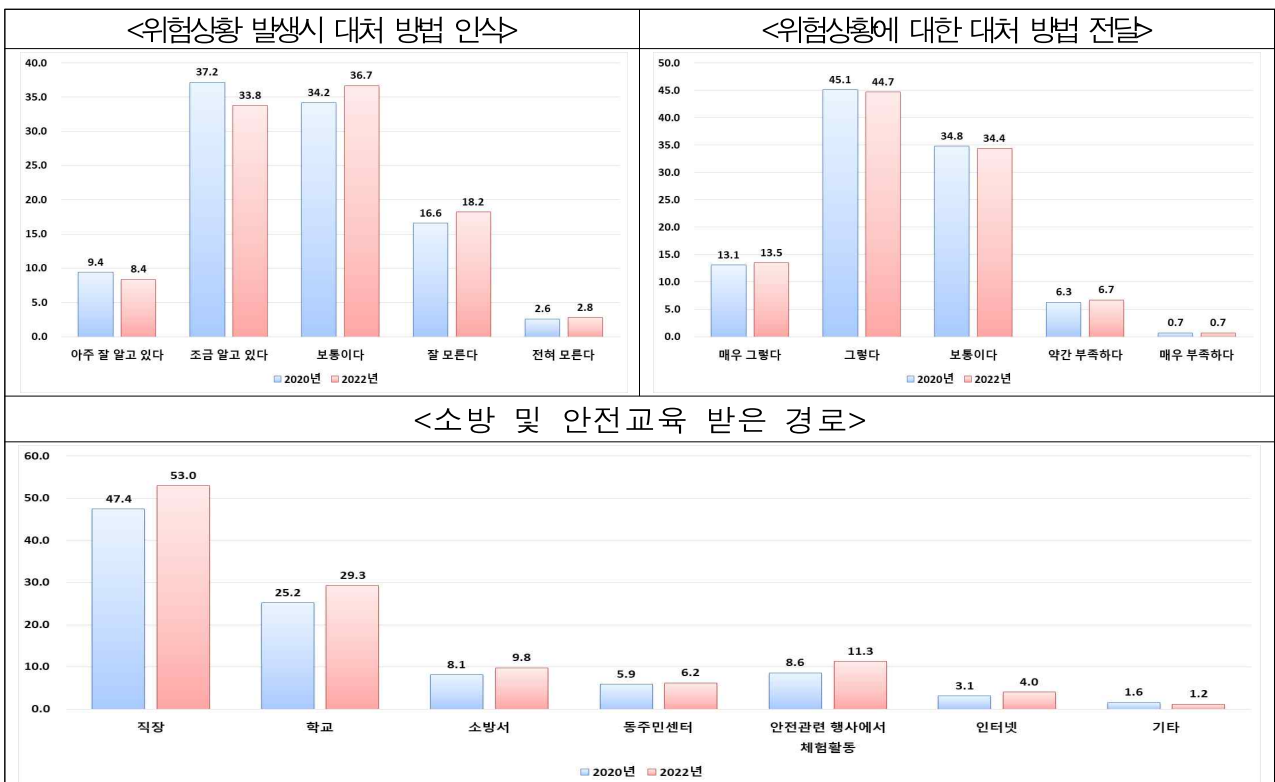
- 경남도민은 78.3%가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으며, 50.0%가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모두 설치되어 있는 가구는 24.7%로 나타남

-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의무설치에 대해 33.8%는 「알고 있다」, 28.1%는 「보통이다」라고 응답하였고, 「모른다」는 38.1%로 나타남



□ 안전교육 받은 경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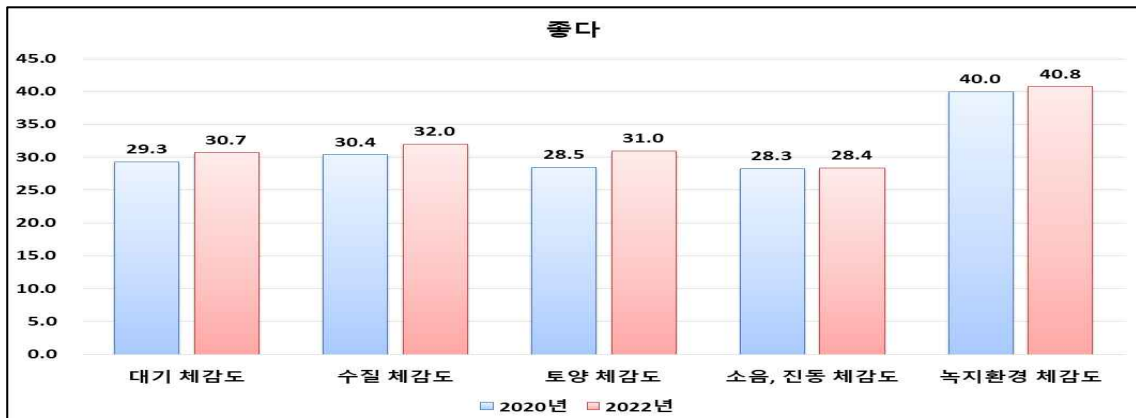
- 경남도민 중 42.2%는 위험상황 발생시 대처 방법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경남도민 중 50.4%는 소방 및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소방 및 안전교육이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잘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 「매우 그렇다」 13.5%, 「그렇다」 44.7%로 58.2%는 내용 전달이 잘 된 것으로 평가하였고, 「부족」은 7.4%로 나타남
- 소방 및 안전교육을 받은 경로는 「직장」이 53.0%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「학교」 29.3%, 「안전관련 행사에서 체험활동」 11.3%, 「소방서」 9.8%의 순으로 나타남



V. 환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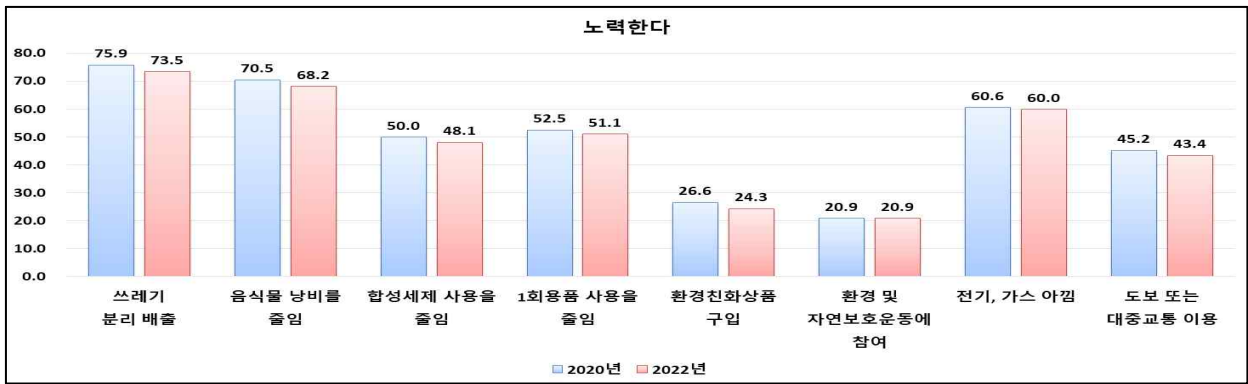
□ 주관적 환경체감도

- “대기”가 「좋다」 30.7%로 2020년(29.3%)에 비해 1.4%p 증가
- “수질”이 「좋다」 32.0%로 2020년(30.4%)에 비해 1.6%p 증가
- “토양”이 「좋다」 31.0%로 2020년(28.5%)에 비해 2.5%p 증가
- “소음, 진동”이 「좋다」 28.4%로 2020년(28.4%)에 비해 0.1%p 증가
- “녹지환경”이 「좋다」 40.8%로 2020년(40.0%)에 비해 0.8%p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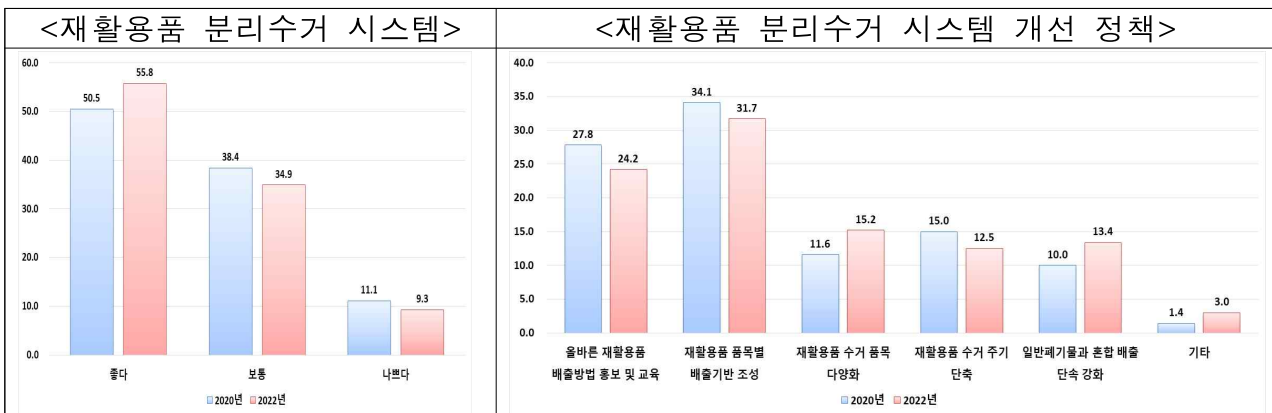
□ 환경오염 방지 노력

- “쓰레기(음식물 포함) 분리배출”은 「노력한다」 73.5%로 나타났고, 「노력하지 않는다」 4.3%로 나타남
- “음식물 낭비를 줄임”은 「노력한다」 68.2%로 나타났고, 「노력하지 않는다」 4.5%로 나타남
- “합성세제 사용을 줄임”은 「노력한다」 48.1%로 나타났고, 「노력하지 않는다」 8.9%로 나타남
- “일회용품 사용을 줄임”은 「노력한다」 51.1%로 나타났고, 「노력하지 않는다」 10.5%로 나타남
- “환경친화상품 구입”은 「노력한다」 24.3%로 나타났고, 「노력하지 않는다」 33.2%로 나타남
- “환경 및 자연보호운동(활동)에 참여”는 「노력한다」 20.9%로 나타났고, 「노력하지 않는다」 41.9%로 나타남
- “전기나 가스 절약”은 「노력한다」 60.0%로 나타났고, 「노력하지 않는다」 6.9%로 나타남
- “도보나 대중교통 이용”은 「노력한다」 43.4%로 나타났고, 「노력하지 않는다」 18.1%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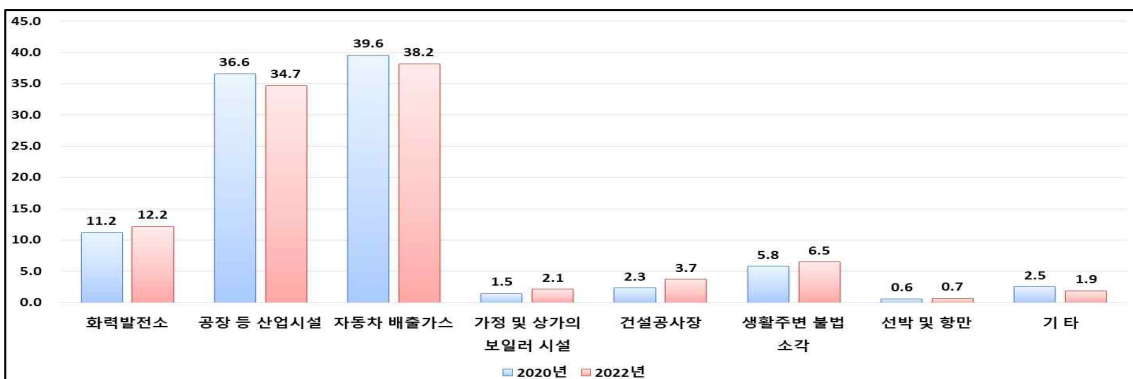
□ 재활용품 관리 대책

- 현재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스템에 대해 「좋다」가 55.8%로 나타났으며, 「나쁘다」는 9.3%로 나타남
-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스템 개선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은 「재활용품 품목별 배출기반 조성」이 31.7%로 나타났고, 다음으로 「올바른 재활용품 배출방법 홍보 및 교육」 24.2%, 「재활용품 수거 주기 단축」 15.2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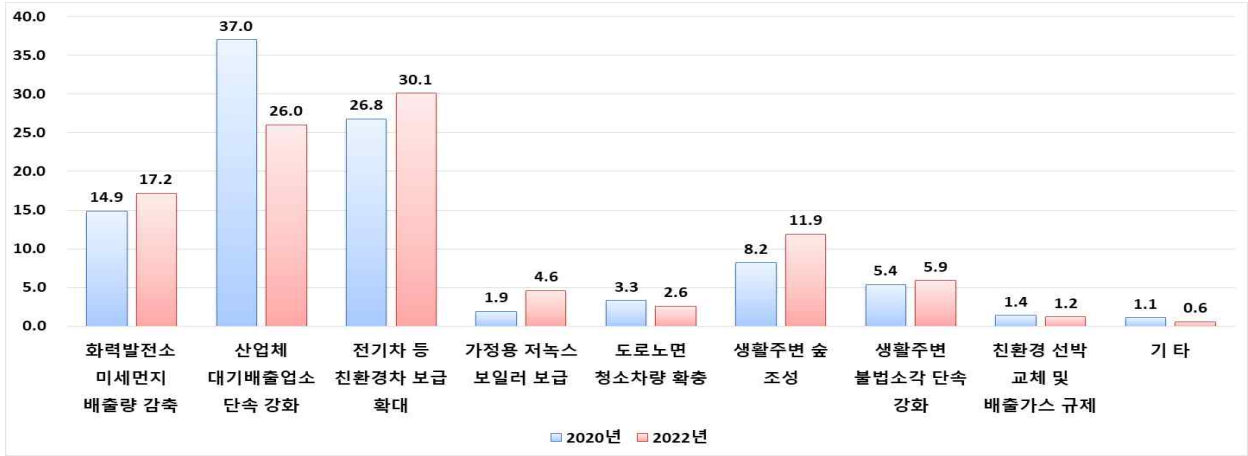
□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원인

- 경남도민은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38.2%가 「자동차 배출가스」, 34.7%가 「공장 등 산업시설」이라고 응답하였으며, 다음으로는 「화력발전소」 12.2%, 「생활주변 불법 소각」 6.5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□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추진 정책

-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은 「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」 30.1%, 「산업체 대기배출업소 단속 강화」 26.0%, 「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」 17.2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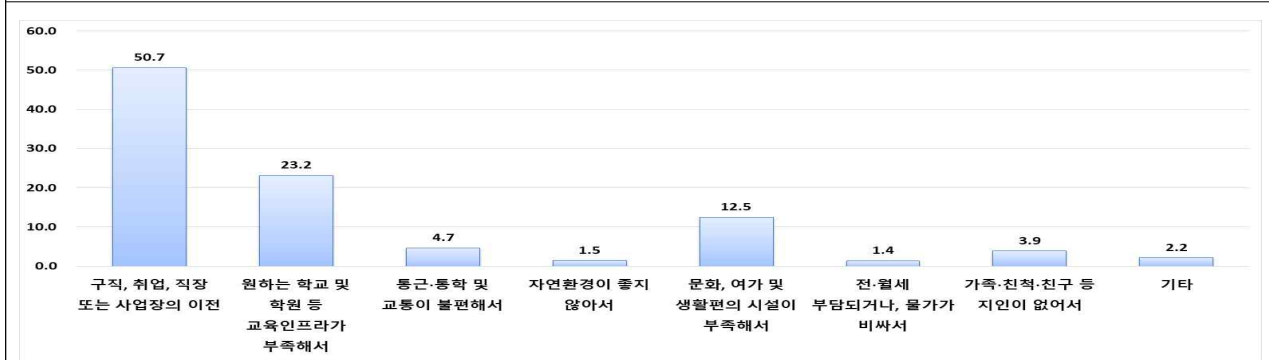
VI. 부가조사

□ 이주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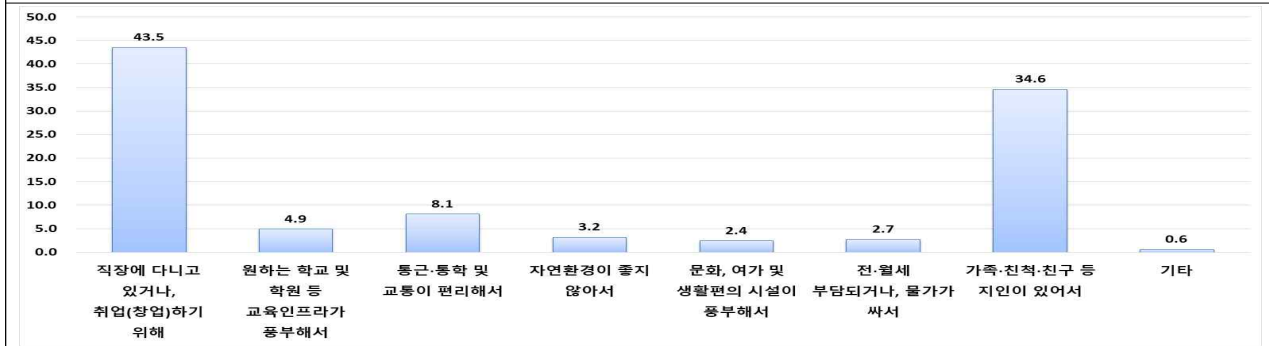
- 다른 시도로 이주할 계획이 있는 경남도민은 29.9%로 나타났고, 예상 시기는 평균적으로 향후 3.2년으로 나타남
- 이주하려는 지역으로는 「동남권」이 45.4%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, 다음으로 「수도권」 40.2%, 「대경권」 5.6%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동남권의 세부 지역으로는 「부산」 67.4%, 「경남」 26.1%, 「울산」 6.5%로 나타남
- 경남을 떠나려는 이유는 「구직, 취업, 직장 또는 사업장의 이전」이 50.7%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, 다음으로는 「원하는 학교 및 학원 등 교육인프라가 부족해서」 23.2%, 「문화, 여가 및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해서」 12.5%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경남에 계속 거주하려는 이유는 「직장에 다니고 있거나, 취업(창업)하기 위해」이 43.5%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, 다음으로는 「가족·친척·친구 등 지인이 있어서」 34.6%, 「통근·통학 및 교통이 편리해서」 8.1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<경남을 떠나려는 이유>



<경남에 계속 거주하려는 이유>



□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인지도

-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대해 알고 있는 경남도민은 38.1%로 나타남
-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「일자리 정책」이 39.1%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, 다음으로는 「광역교통 인프라구축 정책」 28.1%, 「인구 유입 증대 및 유출 감소 정책」 11.4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